

2017년 금정구노인복지관 지역사회조사 보고서

- 노인,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

2017.12



2017 지역사회조사 보고서 목차

I. 지역사회조사 개요	09
1. 지역사회조사 추진배경	09
2. 지역사회조사 연구방법	09
1) 지역사회조사 목적	09
2) 지역사회조사 목표.....	10
3) 지역사회조사 조사설계	10
II. 지역 분석	17
1. 금정구노인복지관의 지리적 위치	17
2. 금정구 노인인구 현황 및 추이	18
3. 베이비부머 세대 현황 및 추이	21
III. 욕구조사 결과	33
1. 노인 (만 60세 이상)	33
1) 일반내용 조사결과	33
(1) 인구사회학적 특성	33
(2) 금정구노인복지관에 대한 인식	34
(3) 노인의 복지욕구	39
(4) 지역사회 및 복지관 이용 만족도	42
2) 복지관 이용여부에 따른 노인의 복지욕구, 지역사회 만족도.....	45
(1) 이용여부에 따른 노인의 복지욕구	45
(2) 이용여부에 따른 지역사회 만족도	48
3) 인구특성별 노인의 복지욕구	49
(1) 성별에 따른 조사결과	49
(2) 연령에 따른 조사결과	50
(3) 학력에 따른 조사결과	53
4) 인구특성별 지역사회 만족도 및 복지관 이용 만족도	58
(1) 인구특성별 지역사회 만족도	58
(2) 인구특성별 복지관 이용 만족도	60

5) 지역사회 만족도와 복지관 이용만족도 등의 관련성	62
6) 지역사회 만족도와 복지관 이용만족도 요인 분석	63
(1) 지역사회 만족도 영향 요인	63
(2) 복지관 이용만족도 영향 요인	64
2. 베이비부머 세대 (1955년 ~ 1963년)	65
1) 일반내용 조사결과	65
(1) 인구사회학적 특성	65
(2) 금정구노인복지관에 대한 인식	67
(3) 베이비부머의 일반적 욕구	70
(4) 베이비부머의 복지욕구	73
(5) 지역사회 만족도	78
(6) 사회적 자본 수준	78
2) 인구특성별 베이비부머의 일반적 욕구	79
(1) 성별에 따른 조사결과	79
(2) 연령에 따른 조사결과	79
(3) 학력에 따른 조사결과	80
3) 인구특성별 베이비부머의 복지욕구	81
(1) 성별에 따른 조사결과	81
(2) 연령에 따른 조사결과	81
(3) 학력에 따른 조사결과	82
4) 지역사회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 등의 관련성	85
5) 지역사회 만족도 요인분석	86
6) 사회적 자본 요인분석	87
3.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88
1) 회의내용 결과	88
2) 정리 및 요약	90
4. 프로그램 현황(2017년) 분석	91
IV. 결론	93
부록 1. 설문지(60세 이상 노인)	98
부록 2. 설문지(베이비부머 세대)	103
부록 3.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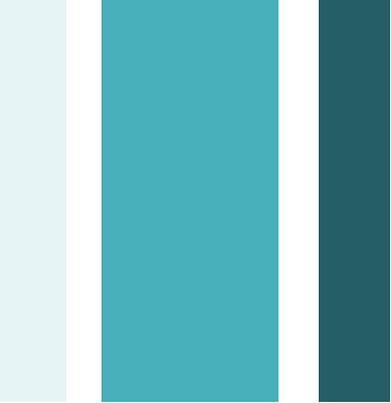
표 차례

<표 1> 설문조사 조사표(일반노인)	11
<표 2> 설문조사 조사표(베이비부머)	12
<표 3> 전문가 인터뷰 참여자 명단	13
<표 4> 전문가 인터뷰 질문내용	13
<표 5> 부산시 및 금정구 노인인구	18
<표 6> 금정구 동별 노인인구 수 및 노인인구 비율	18
<표 7> 금정구 고령화지표 및 노인부양비 추이	19
<표 8> 구·군별 노인 1인가구수(2015년)	20
<표 9> 부산시 베이비부머 인구	21
<표 10> 금정구 동별 베이비부머 수	22
<표 11> 인구학적 특성	34
<표 12> 복지관 인지도	34
<표 13>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35
<표 14> 복지관 이용 빈도	35
<표 15> 복지관 이용 만족도	36
<표 16>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	36
<표 17> 복지관 이용 후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	37
<표 18>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	38
<표 19> 노인복지관 인지 경로	38
<표 20> 복지관 기능 인식	39
<표 21>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39
<표 22>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	41
<표 23>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	41
<표 24>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	41
<표 25>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	42
<표 26> 지역사회 만족도	42
<표 27> 복지관 이용 만족도	43
<표 28> 복지관 기능인식 1순위(이용여부)	45
<표 29> 복지관 기능인식 2순위(이용여부)	45
<표 30>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이용여부)	46
<표 31>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2순위(이용여부)	46
<표 32>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이용여부)	47
<표 33>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이용여부)	47
<표 34> 지역사회 만족도(이용여부)	48
<표 35>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성별)	49
<표 36>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성별)	49
<표 37>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성별)	50
<표 38> 복지관 기능인식 1순위(연령)	51
<표 39>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연령)	51
<표 40>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연령)	52

<표 41>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연령)	53
<표 42> 복지관 기능인식 1순위(학력)	54
<표 43> 복지관 기능인식 2순위(학력)	54
<표 44>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학력)	55
<표 45>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2순위(학력)	55
<표 46>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 의향(학력)	56
<표 47>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학력)	57
<표 48> 원하는 상담내용(학력)	57
<표 49> 인구특성별 지역사회 만족도	58
<표 50> 인구특성별 복지관 이용 만족도	60
<표 51> 인구특성별 복지관 이용 만족도	62
<표 52> 지역사회 만족도 영향 요인	63
<표 53> 복지관 이용 만족도 영향 요인	64
<표 54> 인구학적 특성(베이비부머)	66
<표 55> 복지관 인지도(베이비부머)	67
<표 56>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베이비부머)	67
<표 57> 복지관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베이비부머)	68
<표 58>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베이비부머)	69
<표 59>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베이비부머)	69
<표 60>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베이비부머)	70
<표 61> 은퇴이후 지향하는 삶의 스타일(베이비부머)	70
<표 62> 성공적 노후를 위한 필요 준비사항(베이비부머)	71
<표 63> 성공적 노후를 위한 필요 준비사항(베이비부머)	71
<표 64> 성공적 노후를 위한 필요 준비사항(베이비부머)	72
<표 65> 보험가입 여부(베이비부머)	73
<표 66> 복지관 기능 인식(베이비부머)	73
<표 67>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베이비부머)	74
<표 68>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베이비부머)	75
<표 69>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의 역할(베이비부머)	76
<표 70>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베이비부머)	76
<표 71>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베이비부머)	77
<표 72>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베이비부머)	77
<표 73> 지역사회 만족도(베이비부머)	78
<표 74> 사회적 자본 수준(베이비부머)	78
<표 75>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1순위(연령) (베이비부머)	79
<표 76> 노후 함께 살고 싶은 사람(학력) (베이비부머)	80
<표 77>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2순위(연령) (베이비부머)	81
<표 78>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연령) (베이비부머)	82
<표 79>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 역할(학력) (베이비부머)	83
<표 80>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학력) (베이비부머)	83
<표 81> 지역사회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 등의 관련성 (베이비부머)	85
<표 82> 지역사회 만족도 요인분석 (베이비부머)	86
<표 83>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베이비부머)	87
<표 84> 사회적 자본 이론 기반 프로그램 분류(2017년 사업 기준)	92

그림 차례

<그림 1> 지역사회조사 진행과정	10
<그림 2> 금정구노인복지관과 금정구의 지리적 위치	17
<그림 3> 금정구 동별 노인인구 비율	19
<그림 4> 금정구 고령화율 및 노인부양비 추이	19
<그림 5> 구·군별 노인 1인가구수(2015년)	20
<그림 6> 8대 특광역시 베이비부머 인구 현황	21



I . 지역사회조사 개요

1. 지역사회조사 추진배경
2. 지역사회조사 연구방법

I. 지역사회조사 개요

1. 지역사회조사 추진배경

1) 제도·법·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과 역할에 혼란을 겪고 있는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천현장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전문성 담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함.
- 노후준비지원법 제정(2015. 6.) 및 시행(2015. 12.)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 증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가 시작됨. 하지만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짐.
- 노인우울 및 자살, 노인학대, 치매국가책임제 등 보건복지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2) 다양한 노인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 요구

- 노인의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역할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전, 베이비부머 집단의 고령세대 진입으로 인한 사회전반의 변화 예측 및 이를 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함.
- 베이비부머 세대 특성(건강집단, 양질의 교육 수료자, 평균은퇴연령 56세 등)에 따른 특성화, 전문화, 고급화된 전략이 요구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재가노인서비스 등 유사 사업에 대한 방향과 대안 제시가 필요함.
- 사회보장급여법, 고령친화, 읍면동복지허브화 등 사회변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노인복지관의 판을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사회조사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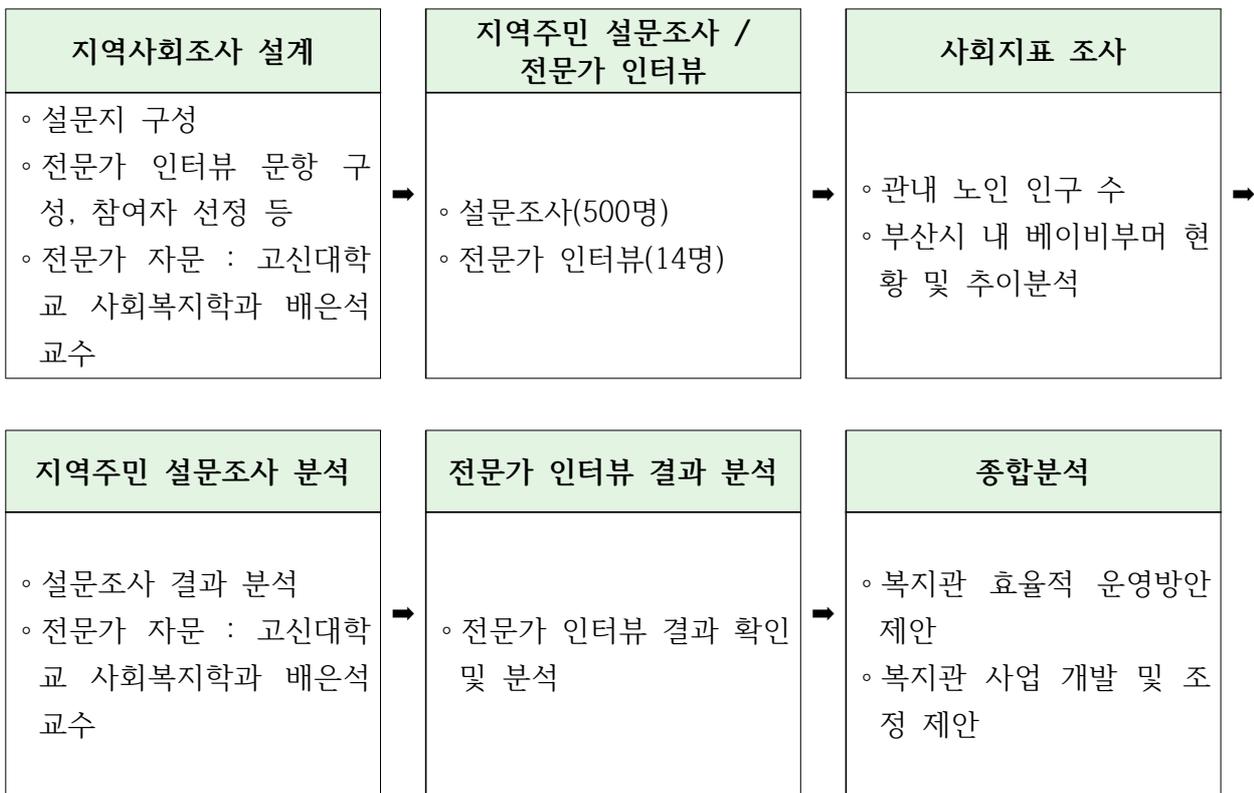
1) 지역사회조사 목적

금정구노인복지관 관할 지역사회의 현황과 특성,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와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관 운영방향 설정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2) 지역사회조사 목표

- 사회지표, 문헌조사를 통해 관할지역의 노인과 베이비부머의 현황을 파악한다.
-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노인복지관에 대한 주민들(노인, 베이비부머)의 인식과 주요욕구, 복지관의 사업방향 등을 파악한다.
-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복지관의 사업방향에 대해 풍부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3) 지역사회조사 조사설계



<그림 1> 지역사회조사 진행과정

(1) 지역주민 설문조사

◦ 조사대상

금정구 거주 60세 이상 노인 및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총500명, 관할 지역(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표본 표집

- 복지관 이용노인 200명
- 복지관 비이용노인 200명
- 베이비부머 100명

◦ 조사시기

2017. 10. 16. ~ 2017. 11. 17.

◦ 측정도구

본 복지관에서 직접 고안한 질문지 사용

구분	변수	문항
금정구노인복지관에 대한 인식	복지관 인지도	8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복지관 이용 빈도	
	복지관 이용 만족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	
	복지관 이용 후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	
	노인복지관 인지 경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관 기능 인식	6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및 복지관 이용 만족도	지역사회 만족도	20
	복지관 이용 만족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역, 거주기간, 학력, 가족형태,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7

<표 1> 설문조사 조사표(일반노인)

구분	변수	문항
금정구노인복지관에 대한 인식	복지관 인지도	5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복지관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	
	중장년층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인지 경로	
베이비부머의 일반적 욕구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9
	은퇴이후 지향하는 삶의 스타일	
	성공적 노후를 위한 필요 준비사항	
	은퇴 후 불안한 요소	
	노후 함께 살고 싶은 사람	
	보험가입여부	
베이비부머의 복지욕구	복지관 기능 인식	7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의 역할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사회 만족도	8
지역사회 자본(사회적 자본)	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	18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역, 거주기간, 학력, 직업, 가족 형태, 자녀수, 주거소유형태,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10

<표 2> 설문조사 조사표(베이비부머)

◦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검토 작업(data cleaning)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에는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들 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들 간의 평균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들 간의 관련성과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과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2) 전문가 인터뷰 (Focused Group Interview)

◦ 조사대상

연번	성명	근무처	직위
1	정미영	금정구의회	의원
2	박종성	금정구의회	의원
3	김경희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장
4	차하나	청룡노포동 주민센터	주무관
5	황춘화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부장
6	김은영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7	강정희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	사무국장
8	박경하	부산복지개발원	부연구위원
9	김 진	부산가톨릭대학교 노인복지보건학과	교수
10	김민구	금정구보건소	방문운동처방사
11	송차목	금정구보건소	방문간호사
12	이연실	금정구노인복지관	생활관리사
13	조수경	금정구노인복지관	관장
14	김새봄	금정구노인복지관	과장

<표 3> 전문가 인터뷰 참여자 명단

◦ 조사시기

2017. 10. 25. / 10. 30. / 11. 03.

◦ 측정도구

‘지역에 대한 복지 수준, 지역노인의 욕구 및 문제, 노인의 어려움과 욕구해결을 위한 대안 및 과제, 노인복지관의 중점적인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 구성

구분	질문
지역에 대한 복지수준	노인복지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구 및 문제	지역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는 욕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안 및 과제	노인의 어려움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사업	노인복지관의 중점적인 역할과 기능에 따라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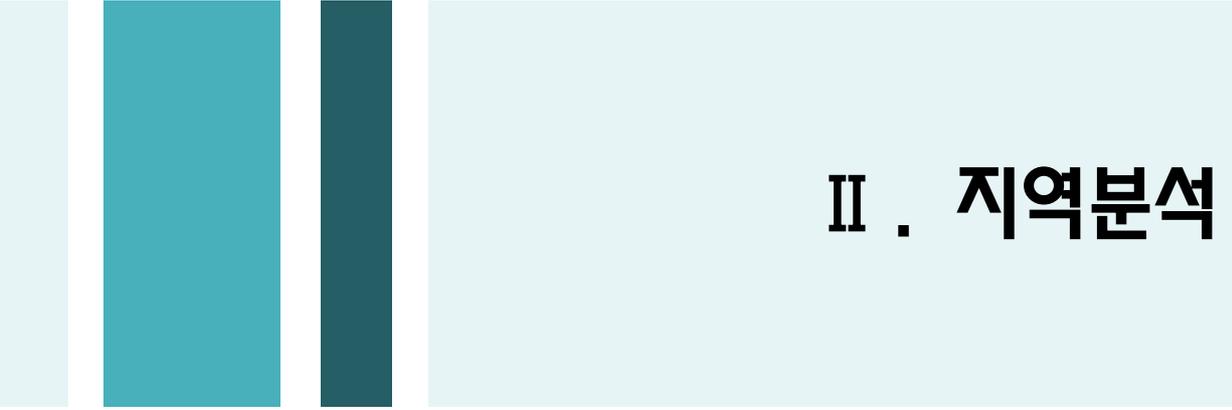
<표 4> 전문가 인터뷰 질문내용

◦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질문 참석자들에게 동의를 구해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였다. 녹취된 내용과 사회자 기록을 통해 회의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3) 사회지표 조사 (Social Indicator Survey)

- 부산시청, 금정구청의 통계연보,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노후복지를 위한 종합대책”, (재)부산복지개발원, 2015. 12. 활용



II . 지역분석

1. 금정구노인복지관 지리적 위치
2. 금정구 노인인구 현황 및 추이
3. 베이비부머 세대 현황 및 추이

Ⅱ. 지역분석

1. 금정구노인복지관 지리적 위치

- 금정구노인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청룡동은 금정구의 북서부에 위치한 동임.
- 서쪽으로 경상남도 양산시와 접하고, 북으로는 노포동, 남으로는 금성동과 남산동에 접함.
- 청룡동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어 취락의 형성은 미약함. 자연 마을로는 상마(上麻)마을, 하마(下麻)마을이 있으며 범어사 입구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관내에는 조계종 제14교구 본사이며, 화엄종 10찰의 하나인 대찰인 범어사가 위치해 있음.



<그림 2> 금정구노인복지관과 금정구의 지리적 위치

2. 금정구 노인인구 현황 및 추이

1) 금정구 노인인구 현황 및 추이(만65세 이상)

(1) 금정구 노인인구 현황

- 노인인구는 부산시와 금정구 모두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금정구 내에서는 남산동과 구서2동에 노인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다음으로 부곡2동, 부곡4동, 구서1동, 서3동 순으로 나타남.
-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선두구동의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1동, 부곡1동, 서3동, 장전3동·청룡노포동, 금성동 순으로 나타남.
- 금정구 고령화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시 고령화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금정구는 2014년부터 고령화율 14.0%를 초과함.
- 금정구 노인부양비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단위 : 명, %)

연도	부산시				금정구			
	노인인구 구성비 (고령화율 ¹⁾)	계	남	여	노인인구 구성비 (고령화율)	계	남	여
2014	14.0	492,116	210,489	281,627	14.3	36,106	15,684	20,422
2015	14.5	516,210	221,839	294,371	15.1	37,714	16,467	21,247
2016	15.2	537,763	231,677	306,086	15.9	39,551	17,236	22,315

자료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2014 ~ 2016)

<표 5> 부산시 및 금정구 노인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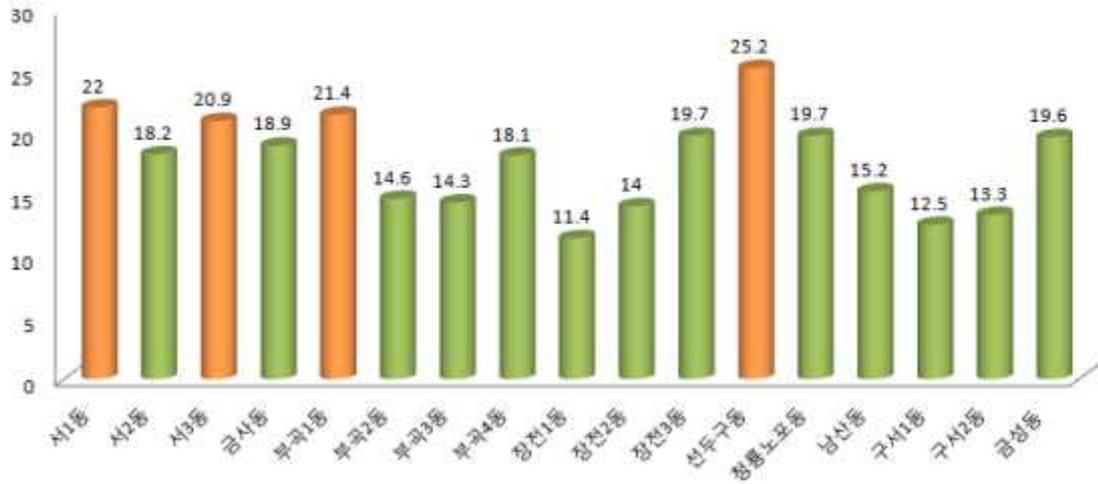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구분	서1동	서2동	서3동	금사동	부곡1동	부곡2동	부곡3동	부곡4동	장전1동	장전2동	장전3동	선두구동	청룡 노포동	남산동	구서1동	구서2동	금성동
2014	노인	1,614	1,989	2,299	1,657	1,947	2,436	2,286	2,316	2,196	2,134	1,300	651	1,879	4,678	2,175	4,311	222
2015		1,641	2,086	2,398	1,768	2,055	2,550	2,427	2,444	2,186	2,147	1,327	666	1,991	4,908	2,283	4,545	227
2016		1,703	2,152	2,513	1,875	2,154	2,650	2,470	2,595	2,257	2,240	1,337	664	2,111	5,178	2,531	4,812	240
2016	전체 인구	7,743	11,837	12,015	9,900	10,065	18,201	17,284	14,352	19,790	15,971	6,801	2,632	10,723	34,029	20,202	36,137	1,226
	2016 노인비율	22.0	18.2	20.9	18.9	21.4	14.6	14.3	18.1	11.4	14.0	19.7	25.2	19.7	15.2	12.5	13.3	19.6

자료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2014 ~ 2016)

<표 6> 금정구 동별 노인인구 수 및 노인인구 비율

1)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백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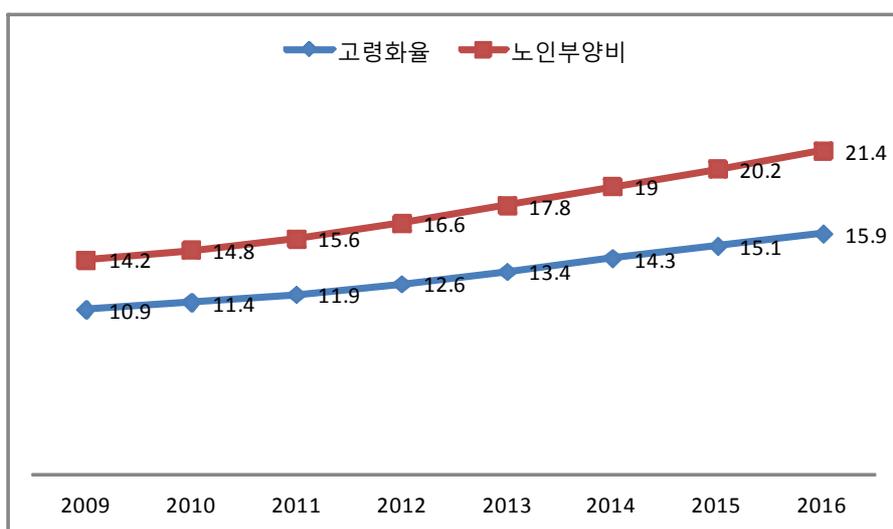
<그림 3> 금정구 동별 노인인구 비율

(단위 : %,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고령화율	10.9	11.4	11.9	12.6	13.4	14.3	15.1	15.9
노인부양비 ²⁾	14.2	14.8	15.6	16.6	17.8	19.0	20.2	21.4

자료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2014 ~ 2016)

<표 7> 금정구 고령화지표 및 노인부양비 추이



<그림 4> 금정구 고령화율 및 노인부양비 추이

2)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 수

(2) 금정구 노인 1인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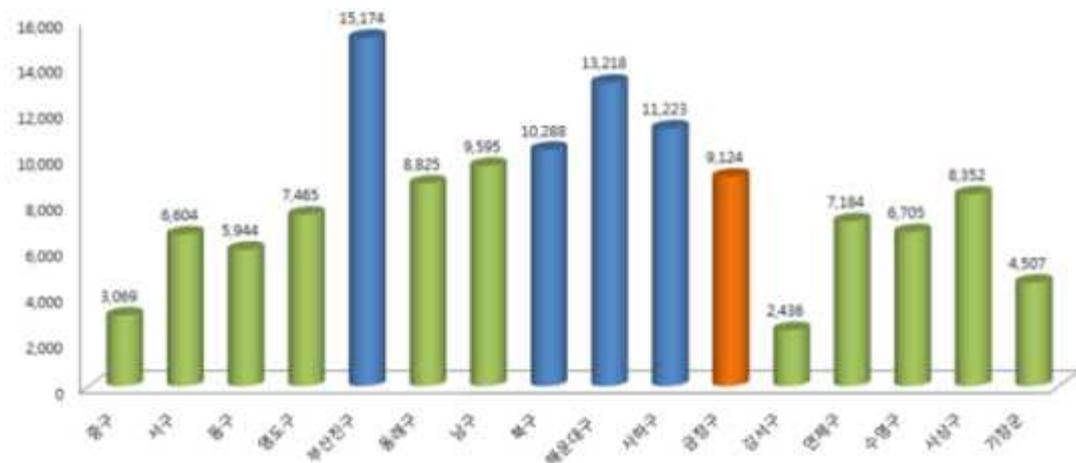
◦ 금정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5번째로 노인 1인 가구 수가 높음.

(단위 : 세대)

구분	60세 이상_계	60~64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부산시	129,713	32,662	28,529	25,997	22,059	13,465	7,001
중구	3,069	805	727	583	486	278	190
서구	6,604	1,554	1,433	1,347	1,148	709	413
동구	5,944	1,276	1,222	1,218	1,150	714	364
영도구	7,465	1,731	1,589	1,607	1,378	744	416
부산진구	15,174	3,633	3,256	3,104	2,727	1,641	813
동래구	8,825	2,345	1,914	1,753	1,394	916	503
남구	9,595	2,286	2,190	2,027	1,654	949	489
북구	10,288	2,641	2,235	2,087	1,722	1,123	480
해운대구	13,218	3,286	2,806	2,652	2,313	1,433	728
사하구	11,223	3,004	2,581	2,213	1,805	1,032	588
금정구	9,124	2,324	1,949	1,792	1,589	1,011	459
강서구	2,436	647	494	479	389	276	151
연제구	7,184	1,923	1,622	1,423	1,165	685	366
수영구	6,705	1,704	1,561	1,248	1,088	701	403
사상구	8,352	2,396	1,987	1,586	1,277	756	350
기장군	4,507	1,107	963	878	774	497	288

자료 :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2015)

<표 8> 구·군별 노인 1인가구수(2015년)



<그림 5> 구·군별 노인 1인가구수(2015년)

3. 베이비부머 세대 현황 및 추이

1) 부산시 베이비부머 세대 현황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총 7,110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함.
- 부산의 베이비부머는 552천명으로 전체인구(3,405천명)의 16.2%이고, 이는 전국(14.3%)보다 1.9%높으며, 8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음.
- 2015년 기준,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16,210명으로 전체인구의 14.5%를 차지하며, 따라서 베이비부머 비중이 고령인구 비중 보다 높음. 이는 향후 베이비부머들이 65세를 넘는 시점에 부산의 고령인구 비율 및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을 시사함.

(단위 : 천명, %)

구분	인구				구성비	
	전체(내국인)		베이비부머		전체(내국인)	베이비부머
전국	49,706	(100)	7,110	(14.3)	100.0	100.0
서울	9,567	(100)	1,360	(14.2)	19.2	19.1
부산	3,405	(100)	552	(16.2)	6.8	7.8
대구	2,437	(100)	363	(14.9)	4.9	5.1
인천	2,823	(100)	418	(14.8)	5.7	5.9
광주	1,481	(100)	192	(12.9)	3.0	2.7
대전	1,519	(100)	207	(13.7)	3.1	2.9
울산	1,137	(100)	170	(15.0)	2.3	2.4
세종	200	(100)	21	(10.6)	0.4	0.3

자료 :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15) 내국인

<표 9> 부산시 베이비부머 인구



<그림 6> 8대 특광역시 베이비부머 인구 현황

2) 금정구 베이비부머 세대 현황

◦ 금정구 내에서는 구서2동과 남산동에 베이비부머가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다음으로 구서1동, 부곡3동, 부곡4동, 서3동 순으로 나타남.

(단위 : 세대)

연도별	서1동	서2동	서3동	금사동	부곡1동	부곡2동	부곡3동	부곡4동	장전1동	장전2동	장전3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남산동	구서1동	구서2동	금성동
2014	1,533	2,295	2,425	1,831	1,777	2,809	2,746	2,665	2,251	2,051	1,021	517	1,803	5,213	2,754	5,444	209
2015	1,549	2,332	2,426	1,919	1,802	2,872	2,806	2,636	2,208	2,049	1,004	553	1,772	7,769	2,821	5,515	209
2016	1,576	2,412	2,509	1,962	1,818	2,877	2,839	2,596	2,268	2,079	990	565	1,797	5,624	3,096	5,727	208

자료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2014 ~ 2016)

<표 10> 금정구 동별 베이비부머 수

3) 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주요 욕구분석 선행연구³⁾

(1) 베이비부머의 가족사회관계

구분	주요 내용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보사연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자녀수는 1.9명, 자신의 형제, 자매수는 5.1명, 약 61.2%는 부모가 생존, 11.8%가 손자녀를 두고 있음. ◦ 약1/3이 주2회 이상 부모와 접촉,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은 이보다 낮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에 비해 남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정도가 낮음. - 경제적 지원이 여자의 부모보다는 남자의 부모에게 활발히 제공되는 경향을 보임. ◦ 베이비부머의 대다수가 부모에게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정기적 현금 지원이 주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 ◦ 부모에 대한 친근감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특히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친밀감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음. ◦ 50.2%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지역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움 비율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베이비부머의 46.5%가 부담을 가짐. ◦ 자주 접촉하는 지인은 지역주민(31.5%), 직장동료(28.1%), 동창(25.9%)의 순이며, 도시거주자,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직장동료 중심의 사회관계를 유지 ◦ 개인의 삶에 있어 배우자의 의미가 큰 것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78.4%가 배우자가 노후에 중요할 것으로 응답
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은 '2세대(부부+자녀)'가 73.5%(73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 17.2%(172명)이고, 평균 가족 수는 3.8명 ◦ 부모(시댁과 친정 모두)의 생존율은 부의 경우 16~18%정도, 모의 경우 30~40% 정도임. 부모의 연령은 평균 77.4세 정도로 대체로 건강한 편임. 양가(남편, 아내) 부모님과의 동거율은 높지 않았으며, 남편 '부'와의 동거율이 5.7%로 가장 높았음. 부모와의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교환관계는 활발하지 않으며, 주로 부모에게는 용돈이 가장 많으며, 병간호, 말벗을 주로 함. ◦ 자녀 수(명)는 전체 평균 1.8명이었으며, 아들은 평균 1.0명, 딸은 0.8명 정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연령은 '20대 초반' 36.6%(653명), '20대 후반' 27.5%(491명), '10대 후반' 20.1%(357명), 자녀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73.6% - 자녀가 독립할 나이가 된 후, 자녀와 동거 의향은 '아니오' 82.8%(792명), '예' 17.2%(165명)로 향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예정
중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보사연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유무의 경우 76.3%가 유배우 상태 ◦ 43.5%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고, 17.7%는 30분 이내의 근거리에 거주, 38.8%는 모든 자녀가 30분 이상 걸리는 원거리에 거주 ◦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의 경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5.9%, 일주일에 1~3번이 36.2%, 일주일에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우 28.3% ◦ 배우자와의 상대적 중요성이 32.9%의 비중, 다음이 친구·이웃이 31.5%, 생존 형제·자매는 20.9%로 나타남.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는 부모 부양, 배우자와의 관계 향상, 자녀의 경제적 지원부담 등 가족사회관계에서도 3중고를 겪고 있음. ◦ 가족사회관계에 대한 중요성 제고 및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 ◦ 가족 간의 대화법, 배우자와의 관계 향상, 퇴직 후 가정 내 역할 정립, 조부모로서의 역할 상 등에 대한 고민과 정보 공유가 필요

3) 부산복지개발원 2015-13,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노후 복지를 위한 종합대책」 p.27 ~ 34.

(2) 베이비부머의 건강상태

구분	주요 내용
<p>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보사연 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율은 23.8%, 음주율은 65.8%이며, 고학력 및 취업중인 베이비부머에게서 흡연율이나 음주율이 높음. ◦ 68.5%가 운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집주변의 운동시설과 민간/상업 스포츠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음. ◦ 대체적으로 다양하게 식품을 섭취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수검률도 전체의 80.8%로 매우 높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이 발견된 경우 89.1%가 치료하고 있음. - 치료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으로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고 싶어도 경제적 비용이 들거나 의료기관의 방문이 어려울 정도로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한 경우가 전체의 약 1/3을 차지 - 건강검진의 미수진 이유도 시간이 없다고 한 경우가 전체의 약 1/3을 차지 ◦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27.1%로 비교적 낮으며, 우울증상의 유병률은 10.2%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에게서 만성질환이나 우울증상의 유병률이 높음. ◦ 베이비부머는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행위(식이·운동, 스트레스관리, 건강교육, 상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음.
<p>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상태 ‘좋은 편이다’ 57.0%(570명), ‘보통이다’ 29.2%(292명), ‘나쁜 편이다’ 7.7%(77명), ‘매우 좋다’ 4.7%(47명), ‘매우 나쁘다’ 1.4%(14명) ◦ 만성질환이 ‘있다’ 11.6%(116명), ‘없다’ 88.4%(844명) ◦ 건강실천의 방법으로는 ‘평소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한다’ 91.7%(917명), ‘마음을 편히 가진다’ 81.2%(8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을 충분히 잔다’ 78.4%(784명), ‘금연을 한다(담배 안 피움)’ 76.2%(762명) -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편이다’ 72.5%(725명), ‘절주나 금주를 한다(술 안마심)’ 62.9%(629명) - ‘영양제, 보약, 건강식품 등을 복용한다’ 58.0%(580명),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48.5%(485명) - ‘건강 관련 교육에 참여한다’ 20.8%(208명)
<p>중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보사연 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 수는 ‘없음’이 10.2%, ‘1개’가 17.8%, ‘2개’가 31.4%, ‘3개 이상’이 40.6% ◦ 우울증 여부의 경우 6.6%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로 인한 활동제한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8.3%, ‘그런 편이다’ 2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54.3%, ‘전혀 그렇지 않다’ 14.1% ◦ 건강행위의 경우 운동과 건강검진을 모두 행하고 있는 응답자가 28.1%, 둘 중 하나만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53.4%,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18.5%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의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나 건강유지를 위한 실천행위가 단순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건강행위에 대한 강조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고학력이나 취업중인 세대에서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게 나타나 이들 대상의 건강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특히 질병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만성질환이나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3) 베이비부머의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

구분	주요 내용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보사연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3.4만원, 동부의 거주자는 444.9만원으로 읍면부의 320.7만원보다 약124만원 정도 높음. ◦ 부동산, 동산 등의 자산규모는 평균 3.3억원이며, 지역별로는 동부 4.5억원, 읍면부 3.2억원 수준으로 조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과 자산의 규모가 큼. ◦ 조사가구의 79.7%가 저축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전체가구의 저축, 보험 지출액은 월평균 74.9천원, 가입가구 기준으로는 94만원 ◦ 전체 조사가구 중 55.9%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는 8천 3백만원임. ◦ 주택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임. ◦ 50%가 건강보험이 노후 건강보장을 위해 불충분할 것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5%는 현재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불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12.3%, 미가입이 35.8%임. ◦ 소비형태에 교육수준별,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에 대한 정보수집 후 구입 여부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경향을 보임. -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격에 상관없이 디자인·색상이 마음에 든 경우 구입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구입하는 경향을 보임. ◦ 소비 트렌드는 교육수준별, 가구유형별,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구매활동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경제수준을 살펴본 결과, ‘중하’ 41.1%(411명), ‘중중’ 33.2%(332명), ‘하상’ 9.2%(92명), ‘중상’ 6.2%(62명), ‘하중’ 5.4%(54명), ‘하’ 4.4%(44명), ‘상’ 0.5%(5명) ◦ 수입은 본인과 가족의 근로수입(9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월평균 가구 지출 비중(%)은 ‘본인 혹은 배우자’ 54.2%, ‘자녀(동거 또는 별거 포함)’ 41.6%, ‘부모(동거 또는 별거 포함)’ 4.2% - 최근 줄어든 항목은 ‘외식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복비’, ‘식료품비(외식비 제외)’의 순 - 최근 늘어난 항목은 ‘식료품비(외식비 제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 ‘정보통신비’의 순 - 향후 부담되는 항목은 ‘노후 본인 및 배우자 생활비’, ‘자녀 교육비’, ‘자녀 결혼’,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비’ 순
중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보사연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구성의 경우 유동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금융자산이 없는 경우가 50.3%에 달하고 있으며, 있어도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미만인 경우가 38.7%, 10%이상인 경우가 11.0% ◦ 연금가입여부의 경우 공적연금이나 개인보험(개인연금이나 종신보험) 중 한 개에 가입한 경우가 20.9%이며, 공적 및 개인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는 1.7%에 불과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상태나 소비스타일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음. ◦ 노후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공적보험에 대한 보장이 불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대책이 절실함을 시사함.

(4) 베이비부머의 경제

구분	주요 내용
<p>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보사연 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의 경우 99.9%, 여성의 경우에도 91.4%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등 남녀 간의 차이가 적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의 비율과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음. ◦ 58.2%는 현업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있는 반면, 28.3%는 현업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고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에 현업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83.4%는 현업이 중단된 이후에 대비해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음. ◦ 30.3%는 40대 이후 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3정도가 이미 직업 이동의 경험을 한 것으로 분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9.1%는 퇴직 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63.9%는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며, 특히 남성(81.4%)이 여성(48.1%)보다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학력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베이비부머의 경우 해 본 경험이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비율이 70.0% ◦ 70.9%는 노후 삶에 있어서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 일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
<p>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에 종사한 총 기간은 ‘20년~30년 미만’ 54.7%(328명), ‘30년 이상’ 25.0%(150명), ‘10~20년 미만’ 15.3%(92명), ‘10년 미만’ 5.0%의 순으로 평균 기간은 23.5년임 ◦ 연령별 직종 차이 뚜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대 후반은 ‘사무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가 26.0%, ‘서비스 종사자’ 19.9% - 50대 초반은 ‘판매 종사자’ 27.4%, ‘서비스 종사자’ 23.6%, ‘사무 종사자’ 22.0% - 50대 후반은 ‘판매 종사자’ 35.7%, ‘서비스 종사자’ 21.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0% ◦ 희망퇴직 연령은 ‘남자’ 66.0세, ‘여자’ 63.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대 후반’은 64.5세, ‘50대 초반’은 65.0세, ‘50대 후반’은 67.3세로 연령이 높을수록 일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더 높음 - 연평균 가구소득 ‘6천만원 이상’은 63.0세, ‘5천만원 대’ 65.1세, ‘4천만원 대’ 65.8세, ‘3천만원 대’ 65.6세로 소득이 높을수록 일찍 일을 그만두고자 함 ◦ 일자리를 그만 둘 경우를 대비한 준비 여부는 ‘준비안함’ 84.2%(505명), ‘준비함’ 15.8%(95명)
<p>중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보사연 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8.7%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11.3%,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10.6%,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10.7%, 그 이상인 경우가 8.7%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는 대부분 은퇴 후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 및 새로운 민간 일자리 등 여러 영역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지금까지의 고용정책이 저소득·저학력층에 초점이 맞추어 있던 것으로부터 이들과는 다른 노후 경제활동관을 가지고 있는 중간학력·중간소득층의 욕구 분석에 보다 주목해야 함.

(5)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구분	주요 내용
<p>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보사연 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의 7.3%는 자원봉사 단체에 소속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음. - 43.9%는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우 노후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가 높음. ◦ 베이비부머의 약 40%는 현재 삶과 노후의 삶에 모두 사회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
<p>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목모임 (동창회, 옛 직장동료, 향우회 등)’ 57.3% ‘가족모임’ 14.1%, ‘취미활동 (낚시, 등산, 바둑 등)’ 9.4%, ‘종교 활동’ 8.2%, ‘스포츠 활동’ 4.8%, ‘자원봉사활동’ 1.7%, ‘평생교육/사회교육, 문화센터 교육’ 1.6%, ‘거주 지역 내 활동 (통반장, 지역모임 등) 모임’ 1.3%, ‘시민단체·사회단체’ 0.8%, ‘각종 동우회’ 0.7%, ‘예술창작 활동’ 과 ‘기타’ 가 각각 0.1% ◦ 기부나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기부 참여 정도는 ‘경험 없다’ 80.4%(804명), ‘비정기적으로 했다’ 12.6%(126명), ‘정기적으로 한다’ 7.0%(70명) -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 정도는 ‘경험 없다’ 85.1%(851명), ‘비정기적으로 했다’ 10.9%(109명), ‘정기적으로 한다’ 4.0%(40명)
<p>중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보사연 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활동의 경우 26.9%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전혀 없으며 1개가 53.5%, 2개가 16.3%, 3개 이상이 3.3% ◦ 사회참여 영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살펴본 경우 단체활동이 가장 높고(30.4%), 다음이 여행(29.9%), 적절한 경제활동(23.1%), 공연문화향유(16.7%)의 순서로 나타남.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는 현재 사회참여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삶과 노후에 사회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바 베이비부머들을 사회참여의 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정책적 개입이 요구 ◦ 베이비부머의 높은 교육수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사회공헌 및 참여로 활용될 수 있는 관리체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6) 베이비부머의 여가문화

구분	주요 내용
<p>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보사연 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9.4%는 현재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응답, 노후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7% ◦ 노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내용으로 64.1%는 ‘건강관리교육’을 1순위로 응답, 15.5%는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 이라고 응답 ◦ 노후설계 관심이 많으나 유료화 된 노후설계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 인식수준이 높지는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9%가 향후 노후에 대비해 재무, 여가, 사회참여, 경력관리 등의 다차원적인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의 이용의향을 갖고 있음. - 64.1%가 무료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고, 24.7%가 5만 원 미만의 비용이라면 이용하겠다고 응답 ◦ 베이비부머의 경우 평생교육 실시기관을 선택할 때 비용, 강사의 질, 교육기관의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현재 베이비부머 가운데 13.6%만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매우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며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25.3%에 달하고 있음.
<p>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동 지속여부를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과 ‘평생교육/사회교육, 문화센터 교육’, ‘종교활동’, ‘예술창작 활동’ 100.0%, ‘친목 모임 (동창회, 옛 직장동료, 향우회 등)’ 과 ‘가족모임’ 각각 99.4%, ‘취미활동 (낚시, 등산, 바둑 등)’ 98.9%, ‘스포츠 활동’ 98.7%, ‘각종 동우회’ 98.1%, ‘거주 지역내 활동 (통반장, 지역모임 등)모임’ 97.3%, ‘시민단체·사회단체’ 91.7% ◦ 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로는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집안일이 많아서’의 순임.
<p>중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보사연 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문화향유의 경우 7.2%가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행의 경우는 약 40%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 연 1~2회인 경우가 24.9%, 연 3회이상 13.2%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의 다수는 여가활동이 노후의 삶에 중요하다고 인식 ◦ 이들은 청장년기에 누린 다양한 경험이나 취미활동으로 인해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을 것으로 예상 ◦ 질 높은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 제공과 프로그램 내용의 고급화가 필요 ◦ 복지관 외에도 각 지역의 대학 및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해야 할 것임.

(7) 베이비부머의 가치관

구분	주요 내용
<p>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보사연 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가족에게 부양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아직까지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이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연금 등 사회 보험(28.7%)으로 나타나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음. - 노후에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부부나 혼자 살고 싶다가 93.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베이비부머의 자녀에 대한 의존성은 매우 낮음. ◦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할 때까지(41.5%)가 가장 많았고, 학업을 마칠 때까지(29.6%), 직장이 생길 때까지(23.9%)의 순으로 나타남. - 자녀가 성인이된 이후에도 결혼해서 분가 전에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큼 ◦ 베이비부머의 노후 생활 및 최근 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42.3%),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18.8%),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16.8%), 종교활동을 하면서(9.1%),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7.5%)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싶어 함. ◦ 죽음 및 상제례에 대한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41.8%, 부정적 의견이 42.1%임. - 바람직한 장례방법에 대해 매장 14.4%인 반면, 화장 후 봉안 34.5%, 화장 후 자연장 25.3%, 화장 후 산골 25.7% - 존엄사(72.5%), 장기기증(41.3%)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죽음준비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36.9%임.
<p>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의 취업 및 결혼’, ‘자녀교육’, ‘본인(또는 배우자 포함)의 건강’ 순 ◦ 노후생활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건강 및 기능약화’,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와의 관계’ 순 ◦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중요한 점이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 ‘건강’, ‘가족의 화목’ 순 ◦ 노후생활은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42.7%(427명),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17.5%(175명),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11.6%(116명),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9.8%(98명),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9.7%(97명), ‘종교활동을 하면서’ 5.7%(57명), ‘가사 및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 3.0%(30명)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들은 대다수가 자녀와의 동거가 아닌 단독가구 형성을 희망 ◦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시장의 형성 및 이들 베이비부머의 주거형태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개발하여 활성화 필요



III . 옥구조사 결과

1. 노인 (만 60세 이상)
2. 베이비부머 세대 (1955년 ~ 1963년)
3.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4. 프로그램 현황(2017년) 분석

Ⅲ.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1. 노인 (만 60세 이상)

1) 일반내용 조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
성별 (N=398)	남성	106	26.6
	여성	292	73.4
연령 (N=400)	60~64세	36	9.0
	65~69세	55	13.8
	70~74세	109	27.3
	75~79세	93	23.3
	80세 이상	107	26.8
거주지역 (N=400)	청룡노포동	24	6.0
	남산동	41	10.3
	구서동	63	15.8
	장전동	63	15.8
	부곡동	104	26.0
	서동	64	16.0
	금사동	21	5.3
	선두구동	12	3.0
	금성동	8	2.0
거주기간 (N=398)	5년이하	58	14.6
	6~10년	45	11.3
	11~15년	20	5.0
	16~20년	61	15.3
	21~25년	20	5.0
	26~30년	47	11.8
	31~35년	14	3.5
	31~35년	60	15.1
36~40년	73	18.3	
학력 (N=396)	무학	52	13.1
	초등학교(중퇴, 졸업)	128	32.3
	중학교(중퇴, 졸업)	81	20.5
	고등학교(중퇴, 졸업)	99	25.0
	대학(교)졸업이상	36	9.1

구분		N	%
가족형태 (N=399)	혼자	154	38.6
	부부	155	38.8
	자녀와 거주	65	16.3
	손자녀와 거주	3	0.8
	자녀+손자녀와 거주	14	3.5
	기타	8	2.0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N=391)	해당없음	318	81.3
	일반수급(1종)	50	12.8
	조건부수급(2종)	2	0.5
	차상위계층(1, 2종)	12	3.1
	법정 모부자가정	0	0
	기타	9	2.3

<표 11> 인구학적 특성

- 남성은 26.6%, 여성은 73.4%임. 연령은 70대 이상이 77.4%를 차지함.
- 거주지역은 부곡동이 26.0%로 가장 많았고, 구서동과 장전동이 15.8%, 남산동이 10.3% 순으로 나타남.
- 금정구 거주기간은 21년 이상이 53.7%를 차지했으며, 학력은 초등학교(중퇴, 졸업) 32.3%, 고등학교(중퇴, 졸업) 25.0% 순으로 나타남.
- 가족형태는 부부거주가 3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혼자 거주 38.6%, 자녀와 거주 1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여부에는 비수급이 81.3%로 나타남.

(2) 금정구노인복지관에 대한 인식

① 복지관 인지도

구분	빈도	퍼센트
잘 모름	105	26.3
알지만 이용안함	94	23.5
이용하고 있음	201	50.3
합계	400	100.0

<표 12> 복지관 인지도

- 금정구노인복지관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50.3%로 가장 높고, 잘 모른다는 응답이 26.3%, 알지만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5%로 나타남.

②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대중교통, 접근이용 불편	47	52.8
시설불편, 낙후됨	0	0.0
낮은 서비스 질	0	0.0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적 불편	0	0.0
정보제공부족	1	1.1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1	1.1
이용시간대 제한	2	2.2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0	0.0
본인이 바쁘고 시간부족	32	36.0
비용부담	0	0.0
기타	6	6.7
합계	89	100.0

<표 13>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복지관을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이 52.8%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바쁘고 시간부족이 36.0%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③ 복지관 이용 빈도

구분	빈도	퍼센트
거의 매일	17	8.5
주1~2회	79	39.3
주3~4회	51	25.4
행사 때만	54	26.9
합계	201	100.0

<표 14> 복지관 이용 빈도

◦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빈도를 묻는 문항에 주1~2회가 39.3%로 가장 높았고, 행사 때만 이용이 26.9%, 주3~4회가 25.4%, 거의 매일 8.5% 순으로 나타남.

④ 복지관 이용 만족도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만족	59	29.6
만족	94	47.2
보통	37	18.6
대체로 불만족	7	3.5
매우불만족	2	1.0
합계	199	100.0

<표 15> 복지관 이용 만족도

◦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만족이 47.2%로 가장 높았고, 매우만족이 29.6%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⑤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체력증진을 위해	28	14.1
새로운 것 배우기 위해	72	36.2
동년배와의 교제	4	2.0
무료한 시간 탈피	24	12.1
식당 등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14	7.0
일자리 마련을 위해	34	17.1
기타	23	11.6
합계	199	100.0

<표 16>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

◦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가 3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17.1%, 체력증진을 위해 14.1%, 무료한 시간 탈피 1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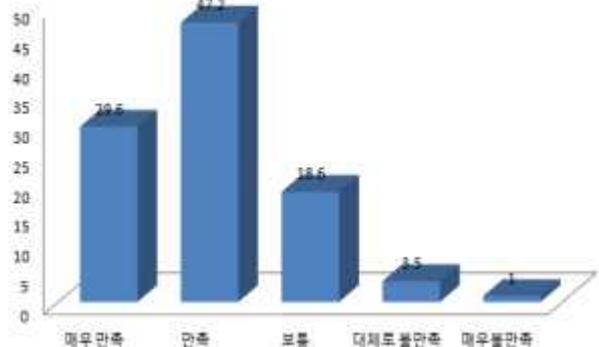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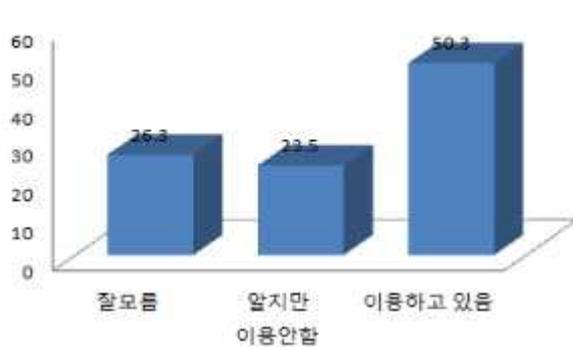
⑥ 복지관 이용 후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활기찬 여가시간	60	30.5	21	11.4	81	24.4
새로운 지식, 정보습득	42	21.3	33	17.9	75	20.2
신체적 건강유지 및 개선	35	17.8	27	14.7	62	16.8
정신적 건강증진	20	10.2	42	22.8	62	14.2
사회적관계 유지 및 확대	3	1.5	21	11.4	24	4.7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참여	4	2.0	6	3.3	10	2.4
경제적 도움	29	14.7	17	9.2	46	13.0
가족관계 회복	0	0	4	2.2	4	0.7
기타	1	0.5	5	2.7	6	1.2
없음	3	1.5	8	4.3	11	2.4
합계	197	100.0	184	100.0	381	100.0

<표 17> 복지관 이용 후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

◦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복지관 이용 후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를 파악한 결과, 1순위에서는 여가시간을 더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울 수 있었다가 21.3%, 신체적 건강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가 17.8%의 순으로 나타남. 2순위에서는 정신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22.8%로 가장 높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울 수 있었다가 17.9%, 신체적 건강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가 14.7% 순으로 나타남.

[복지관 이용과 만족도]



복지관 인지도

복지관 이용 만족도

▶ 복지관을 이용하면 만족도는 높다.

-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 201명 중, 복지관 이용 만족도는 76.7%가 매우만족과 만족한다는 응답을 함.
- 일단 복지관을 이용하면 복지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고, 또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⑦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

구분	빈도	퍼센트
50세부터	7	1.8
55세부터	6	1.5
60세부터	67	16.8
65세부터	175	43.8
70세부터	145	36.3
합계	400	100.0

<표 18>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

◦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65세부터 이용이 4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세부터 이용이 36.3%로 나타남.

⑧ 노인복지관 인지 경로

구분	빈도	퍼센트
친구나 이웃	141	35.3
인터넷	16	4.0
가족	18	4.5
관공서	42	10.5
지역신문	38	9.5
경로당	42	10.5
복지관직원	85	21.3
기타	17	4.3
합계	399	100.0

<표 19> 노인복지관 인지 경로

◦ 복지관을 알고 있는 경우, 인지 경로는 주로 친구나 이웃 35.3%, 복지관 직원 21.3%, 경로당과 관공서 10.5% 였음.

(3) 노인의 복지욕구

① 복지관 기능 인식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활성화 기능	151	37.8	57	14.5	208	30.1
건강증진 도모 기능	138	34.5	107	27.2	245	32.1
정보제공 기능	20	5.0	39	9.9	59	6.6
정서생활지원 기능	10	2.5	42	10.7	52	5.2
활동적 노후도모 기능	14	3.5	33	8.4	47	5.1
노후소득보장 기능	44	11.0	41	10.4	85	10.8
통합적 문제해결 기능	16	4.0	41	10.4	57	6.1
노인권익증진 기능	6	1.5	12	3.1	18	2.0
예비노인 노후복지지원 기능	1	.3	14	3.6	15	1.3
기타	0	0	7	1.8	7	0.6
합계	400	100.0	393	100.0	793	100.0

<표 20> 복지관 기능 인식

◦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묻는 문항에 1순위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 기능이 37.8%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증진 도모 기능 34.5%, 노후소득보장 기능 11.0%, 정보제공 5.0% 순으로 나타남. 2순위에서는 건강증진 도모 기능이 32.1%로 가장 많았고, 평생교육 활성화 기능 30.1%, 노후 소득보장 10.8% 순으로 나타남.

②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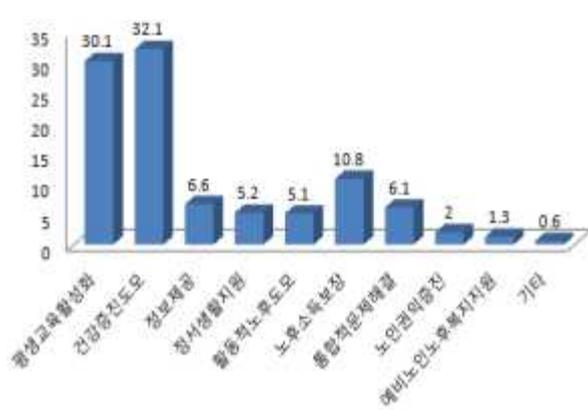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지원	134	33.5	67	17.1	201	28.1
건강증진서비스	144	36.0	110	28.1	254	33.4
상담지원	27	6.8	56	14.3	83	9.2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7	1.8	29	7.4	36	3.6
사회참여활동지원	16	4.0	26	6.6	42	4.9
일자리와 취업지원	51	12.8	45	11.5	96	12.3
위기관리 및 독거노인지원	18	4.5	29	7.4	47	5.5
노인권익서비스	0	0	17	4.3	17	1.4
베이비부머지원	3	.8	8	2.0	11	1.2
기타	0	0	4	1.0	4	0.3
합계	400	100.0	391	100.0	791	100.0

<표 21>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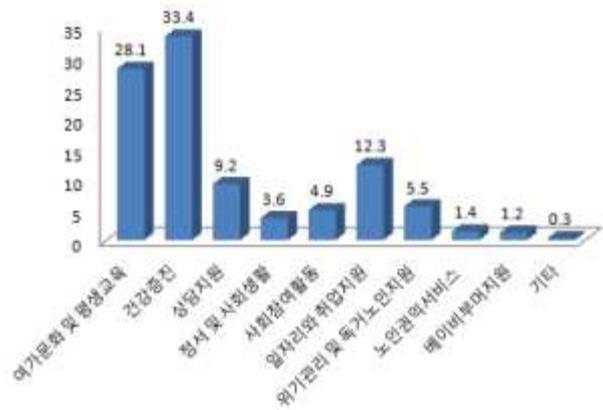
◦ 노인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를 묻는 문항에 1순위에서는 건강증진서비스가 36.0%로 가장 많았으며,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지원 33.5%, 일자리 및 취업지원 12.8% 순으로 나타남. 2순위에서도 동일하기 건강증진서비스가 28.1%로 가장 높았고,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지원 17.1%, 상담지원 14.3%, 일자리 및 취업지원 11.5% 순으로 나타남.

[인식하는 노인복지관 기능 vs 원하는 노인복지관 서비스]

[월등히 높은 평생교육지원과 건강증진 서비스]



인식하는 노인복지관 기능



원하는 노인복지관 서비스

▶ 인식하는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원하는 노인복지관 서비스가 일치한다.

- 주민들은 노인복지관을 평생교육 활성화 기능,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기능,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인지하고 있음.
-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역시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지원, 건강증진 서비스, 일자리와 취업지원 서비스임.

▶ 활기찬 여가시간과 새로운 것 학습, 신체적 건강 유지를 원한다.

- 주민들은 여가시간을 활기차게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지원과 신체적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원하고 있음(인식하는 노인복지관 기능 62.2%, 원하는 노인복지관 서비스 61.5%).

③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

구분	빈도	퍼센트
꼭 참여할것임	92	23.2
참여할것임	169	42.6
고려해보겠음	51	12.8
참여하고 싶으나 여건이 안됨	46	11.6
참여할 의사 없음	39	9.8
합계	397	100.0

<표 22>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

◦ 받고 싶은 서비스 시행 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참여하겠다고 한 응답이 65.8%로 높게 나타남.

④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

구분	빈도	퍼센트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봉사활동	151	38.3
재능을 활용한 사회봉사활동	67	17.0
지역사회공헌활동	42	10.7
노인권익 신장활동	24	6.1
1-3세대 통합을 위한 활동	28	7.1
경제활동	55	14.0
기타	27	6.9
합계	394	100.0

<표 23>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

◦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중 원하는 활동의 유형을 묻는 문항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이 38.3%로 가장 높았고, 재능을 활용한 사회봉사활동 17.0%, 경제활동 14.0% 순으로 나타남.

⑤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

구분	빈도	퍼센트
전문상담	40	10.1
대인관계 상담	66	16.7
심리정서 상담	84	21.2
성상담	5	1.3
건강 상담	198	50.0
기타	3	0.8
합계	396	100.0

<표 24>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

◦ 다양한 상담서비스 중 원하는 상담 내용을 묻는 문항에 건강상담이 50.0%로 가장 많았고, 심리정서 상담 21.2%, 대인관계 상담 16.7%, 경제, 법률, 세무 등 전문상담 10.1% 순으로 나타남.

⑥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153	38.7
치매예방 프로그램	156	39.5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인 프로그램	35	8.9
치매환자가족 프로그램	44	11.1
기타	7	1.8
합계	395	100.0

<표 25>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

◦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를 묻는 문항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39.5%로 가장 높았고,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38.7%, 치매환자 가족 프로그램 11.1% 순으로 나타남.

(4) 지역사회 및 복지관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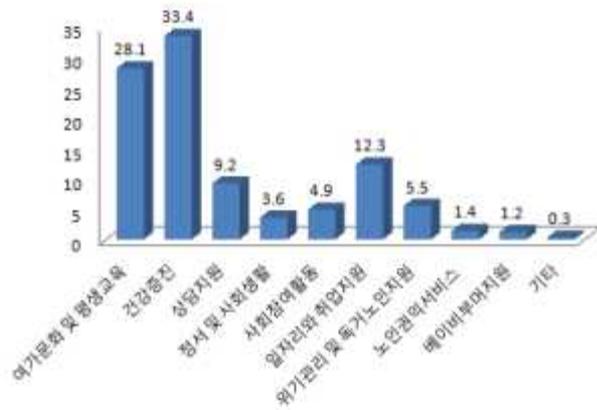
① 지역사회 만족도

구분	N	M	SD
건강	399	3.27	.957
가족관계(자녀 또는 부모)	394	3.65	.780
경제적 여건(소득)	396	3.06	.815
직업(일자리)	374	2.95	.871
사회참여(단체, 조직 활동)	394	3.27	.896
사회적 친분관계	397	3.67	.772
여가생활	396	3.43	.896
전반적 만족도	393	3.45	.716
지역사회 만족합	399	3.3473	.53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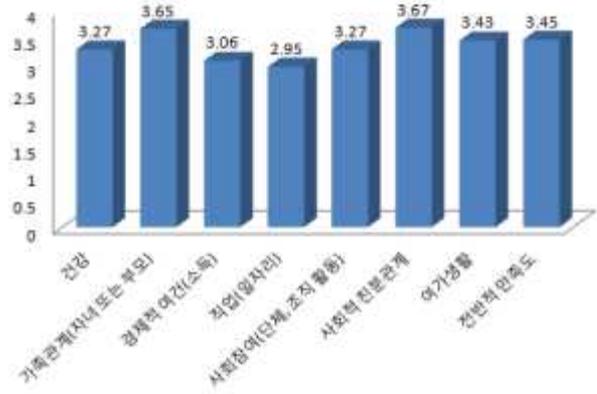
<표 26> 지역사회 만족도

◦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만족도는 3.3점으로 보통이라는 3점보다 높았음.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친분관계가 3.67로 가장 높았고, 직업(일자리)가 2.95점으로 가장 낮았음.

[노인의 일자리에 주목]



원하는 노인복지관 서비스



지역사회 만족도

▶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주민이 원하는 노인복지관의 서비스에서 3순위는 일자리와 취업지원(12.3%)이고,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결과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부분이 직업(일자리)(2.95점)으로 나타남.
- 주민들은 활기찬 여가시간과 건강에 관심이 높지만 일자리와 취업지원 등 노후 경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음. 이에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② 복지관 이용 만족도

구 분	N	M	SD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이용하기 쉽다	189	3.67	.744
복지관의 시설은 이용하기 편리하다	191	3.68	.833
복지관 프로그램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많다	190	3.51	.853
나는 우리 동네(마을)를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190	2.52	1.078
나는 우리 지역단체나 주민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188	2.37	1.059
복지관에 나의 의견을 쉽게 말할 수 있다	188	3.48	.830
복지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87	3.28	.978
나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185	3.72	.733
나는 복지관에 봉사활동, 후원, 정보제공 등으로 기여하고 있다	190	2.66	1.066
나는 복지관을 통해 많은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	190	3.39	.834
나는 지금도 인생의 중요한 전성기라고 생각한다	192	3.36	.971
우리 동네(지역)는 여전히 노인을 하찮게 여긴다	192	3.68	.904
복지관 이용만족합	193	3.2721	.53399

<표 27> 복지관 이용 만족도

◦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관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만족도는 3.3점으로 보통(3점)보다 높았음.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이 3.72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 지역 단체나 주민조직에서의 활동이 2.37점으로 가장 낮았음.

2) 복지관 이용여부에 따른 노인의 복지욕구, 지역사회 만족도

(1) 이용여부에 따른 노인의 복지욕구

- 이용여부에 따른 노인의 복지욕구 차이를 조사한 결과, 복지관 기능 인식(1순위, 2순위), 복지관에 서 받고 싶은 서비스(1순위, 2순위),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 원하는 상담 서비스 내용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x^2=9.991$, $p<.125$),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x^2=1.320$, $p<.85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① 복지관 기능 인식

		평생교육 활성화	건강증진 도모	정보제공	정서생활 지원	활동적 노후도모	노후소득 보장	통합적 문제해결	노인권익 증진	예비노인 노후복지	기타	계	$x^2(p)$
이용	빈도	99	49	8	4	5	27	4	4	1	0	201	36.497*** (.000)
	비율	49.3	24.4	4.0	2.0	2.5	13.4	2.0	2.0	0.5	0.0	100.0	
비이용	빈도	52	89	12	6	9	17	12	2	0	0	199	
	비율	26.1	44.7	6.0	3.0	4.5	8.5	6.0	1.0	0.0	0.0	100.0	
전체	빈도	151	138	20	10	14	44	16	6	1	0	400	
	비율	37.8	34.5	5.0	2.5	3.5	11.0	4.0	1.5	0.3	0.0	100.0	

$p^* < .05$, $p^{**} < .01$, $p^{***} < .001$

<표 28> 복지관 기능인식 1순위(이용여부)

		평생교육 활성화	건강증진 도모	정보제공	정서생활 지원	활동적 노후도모	노후소득 보장	통합적 문제해결	노인권익 증진	예비노인 노후복지	기타	계	$x^2(p)$
이용	빈도	28	67	14	28	14	20	12	5	5	3	196	24.047** (.004)
	비율	14.3	34.2	7.1	14.3	7.1	10.2	6.1	2.6	2.6	1.5	100.0	
비이용	빈도	29	40	25	14	19	21	29	7	9	4	197	
	비율	14.7	20.3	12.7	7.1	9.6	10.7	14.7	3.6	4.6	2.0	100.0	
전체	빈도	57	107	39	42	33	41	41	12	14	7	393	
	비율	14.5	27.2	9.9	10.7	8.4	10.4	10.4	3.1	3.6	1.8	100.0	

$p^* < .05$, $p^{**} < .01$, $p^{***} < .001$

<표 29> 복지관 기능인식 2순위(이용여부)

- 복지관 이용여부에 따른 노인복지관 기능 인식 1순위 조사결과, 이용자는 평생교육활성화 기 능을 49.3%로 가장 높게 인식했고, 비이용자는 건강증진도모 기능을 44.7%로 높게 인식했음. 두 번째는 이용자는 건강증진 도모 24.4%, 비이용자는 평생교육활성화 기능 26.1%로 높게 인 식했음.

- 2순위 조사결과,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건강증진도모 기능을 각각 34.2%, 20.4%로 가장 높게 인식했음. 두 번째 역시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동일하게 평생교육 활성화 기능을

14.3%, 14.7%로 높게 인식했음.

◦ 이용자, 비이용자 모두 노인복지관의 기능으로 평생교육활성화와 건강증진도모 기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②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건강증진	상담지원	정서 및 사회생활	사회참여 활동	일자리와 취업지원	위기관리 및 독거노인 지원	노인권익	베이비 부머지원	기타	계	x ² (p)
이용	빈도	87	57	7	2	6	31	10	0	1	0	201	29.654*** (.000)
	비율	43.3	28.4	3.5	1.0	3.0	15.4	5.0	0.0	0.5	0.0	100.0	
비이용	빈도	47	87	20	5	10	20	8	0	2	0	199	
	비율	23.6	43.7	10.1	2.5	5.0	10.1	4.0	0.0	1.0	0.0	100.0	
전체	빈도	134	144	27	7	16	51	18	0	3	0	400	
	비율	33.5	36.0	6.8	1.8	4.0	12.8	4.5	0.0	0.8	0.0	100.0	

p* < .05, p** < .01, p*** < .001

<표 30>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이용여부)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건강증진	상담지원	정서 및 사회생활	사회참여 활동	일자리와 취업지원	위기관리 및 독거노인 지원	노인권익	베이비 부머지원	기타	계	x ² (p)
이용	빈도	31	70	19	16	11	21	12	9	2	2	193	18.326* (.032)
	비율	16.1	36.3	9.8	8.3	5.7	10.9	6.2	4.7	1.0	1.0	100.0	
비이용	빈도	36	40	37	13	15	24	17	8	6	2	198	
	비율	18.2	20.2	18.7	6.6	7.6	12.1	8.6	4.0	3.0	1.0	100.0	
전체	빈도	67	110	56	29	26	45	29	17	8	4	391	
	비율	17.1	28.1	14.3	7.4	6.6	11.5	7.4	4.3	2.0	1.0	100.0	

p* < .05, p** < .01, p*** < .001

<표 31>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2순위(이용여부)

◦ 복지관 이용여부에 따른 원하는 서비스 1순위 조사결과, 이용자는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지원을 43.3%로 가장 많이 원했고, 비이용자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43.7%로 가장 많이 원했음.

◦ 2순위 조사결과,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건강증진 서비스를 각각 36.3%, 20.2%로 가장 많이 원했음. 두 번째는 이용자의 경우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지원(16.1%)을, 비이용자는 상담지원서비스(18.7%)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자, 비이용자 모두 노인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는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지원과 건강증진 서비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③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

		꼭 참여한다	참여한다	고려해 보겠다	여건이 안된다	참여하지 않는다	계	$\chi^2(p)$
이용	빈도	57	93	24	21	6	201	26.129*** (.000)
	비율	28.4	46.3	11.9	10.4	3.0	100.0	
비이용	빈도	35	76	27	25	33	196	
	비율	17.9	38.8	13.8	12.8	16.8	100.0	
전체	빈도	92	169	51	46	39	397	
	비율	23.2	42.6	12.8	11.6	9.8	100.0	

p* < .05, p** < .01, p*** < .001

<표 32>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이용여부)

◦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가 시행되었을 때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용자는 참여한다는 응답이 74.7%로 높게 나타났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로 낮게 나타남. 비이용자의 경우, 참여한다는 응답이 56.7%로 나타났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6.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④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

		전문상담	대인관계 상담	심리· 정서상담	성(性)상담	건강상담	기타	계	$\chi^2(p)$
이용	빈도	28	36	34	4	95	2	199	12.440* (.029)
	비율	14.1	18.1	17.1	2.0	47.7	1.0	100.0	
비이용	빈도	12	30	50	1	103	1	197	
	비율	6.1	15.2	25.4	0.5	52.3	0.5	100.0	
전체	빈도	40	66	84	5	198	3	396	
	비율	10.1	16.7	21.2	1.3	50.0	0.8	100.0	

p* < .05, p** < .01, p*** < .001

<표 33>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이용여부)

◦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건강상담을 각각 47.7%, 52.3%로 가장 높게 원하였음. 두 번째는 이용자의 경우 대인관계 상담(18.1%), 비이용자는 심리·정서 상담(25.4%)을 원하였음.

(2) 이용여부에 따른 지역사회 만족도

이용 여부	N	M	SD	t	유의 확률
이용	200	25.77	4.932	-2.694**	.007
비이용	199	26.95	3.735		

p* < .05, p** < .01, p*** < .001

<표 34> 지역사회 만족도(이용여부)

-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 25.77점, 비이용자 26.96점으로 비이용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특성이나 응답자들의 특성(연령, 학력 등) 때문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는 복지관의 향후 과제로 볼 수 있음.

3) 인구특성별 노인의 복지욕구

(1) 성별에 따른 조사결과

-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관 기능 인식 1순위($x^2=8.613$, $p<.376$), 복지관 기능 인식 2순위($x^2=13.617$, $p<.137$),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2순위($x^2=14.910$, $p<.093$),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x^2=2.054$, $p<.915$),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x^2=6.495$, $p<.165$)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①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건강증진	상담지원	정서 및 사회생활	사회참여 활동	일자리와 취업지원	위기관리 및 독거노인 지원	노인권익	배이비 부머지원	기타	계	$x^2(p)$
남성	빈도	47	28	3	1	7	16	4	0	0	0	106	16.491* (.021)
	비율	44.3	26.4	2.8	0.9	6.6	15.1	3.8	0.0	0.0	0.0	100.0	
여성	빈도	87	114	24	6	9	35	14	0	3	0	292	
	비율	29.8	39.0	8.2	2.1	3.1	12.0	4.8	0.0	1.0	0.0	100.0	
전체	빈도	134	142	27	7	16	51	18	0	3	0	398	
	비율	33.7	35.7	6.8	1.8	4.0	12.8	4.5	0.0	0.8	0.0	100.0	

$p^* < .05$, $p^{**} < .01$, $p^{***} < .001$

<표 35>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성별)

-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는 남성은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지원(44.3%), 건강증진 서비스(26.4%)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건강증진 서비스(39.0%),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지원(29.8%) 순으로 나타남.

②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

		꼭 참여한다	참여한다	고려해 보겠다	여건이 안된다	참여하지 않는다	계	$x^2(p)$
남성	빈도	26	56	12	5	6	105	12.835* (.012)
	비율	24.8	53.3	11.4	4.8	5.7	100.0	
여성	빈도	66	111	39	41	33	290	
	비율	22.8	38.3	13.4	14.1	11.4	100.0	
전체	빈도	92	167	51	46	39	395	
	비율	23.3	42.3	12.9	11.6	9.9	100.0	

* $p^* < .05$, $p^{**} < .01$, $p^{***} < .001$

<표 36>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성별)

◦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가 시행되었을 때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남성은 참여한다는 응답이 78.1%로 높게 나타났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로 낮게 나타남. 여성의 경우 참여한다는 응답이 61.1%로 나타났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1.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③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

		전문상담	대인관계 상담	심리· 정서상담	성(性)상담	건강상담	기타	계	$\chi^2(p)$
남성	빈도	11	21	21	4	45	2	104	12.386* (.030)
	비율	10.6	20.2	20.2	3.8	43.3	1.9	100.0%	
여성	빈도	28	45	62	1	153	1	290	
	비율	9.7	15.5	21.4	0.3	52.8	0.3	100.0%	
전체	빈도	39	66	83	5	198	3	394	
	비율	9.9	16.8	21.1	1.3	50.3	0.8	100.0%	

p* < .05, p** < .01, p*** < .001

<표 37>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성별)

◦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은 남성은 건강상담(43.3%), 대인관계상담(20.2%), 심리·정서 상담(20.2%), 전문상담(10.6%)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건강상담(52.8%), 심리·정서상담(21.4%), 대인관계상담(15.5%) 순으로 나타남.

(2) 연령에 따른 조사결과

◦ 복지관 기능 인식 1순위,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관 기능 인식 2순위($\chi^2=33.196$, $p<.603$),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2순위($\chi^2=42.212$, $p<.220$),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chi^2=33.169$, $p<.101$),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chi^2=23.985$, $p<.090$)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① 복지관 기능인식 1순위

		평생교육 활성화	건강증진 도모	정보공 공	정서 생활 지원	활동 도모	적 후보 소장	적 합 제 결	노 인 권 진	예 비 지 원	기타	전체	x ² (p)
60-64	빈도	18	5	2	0	1	8	2	0	0	0	36	60.074** (.002)
	비율	50.0	13.9	5.6	0.0	2.8	22.2	5.6	0.0	0.0	0.0	100.0	
65-69	빈도	37	9	1	1	2	4	1	0	0	0	55	
	비율	67.3	16.4	1.8	1.8	3.6	7.3	1.8	0.0	0.0	0.0	100.0	
70-74	빈도	38	37	5	4	5	14	4	2	0	0	109	
	비율	34.9	33.9	4.6	3.7	4.6	12.8	3.7	1.8	0.0	0.0	100.0	
75-79	빈도	31	34	7	2	2	11	6	0	0	0	93	
	비율	33.3	36.6	7.5	2.2	2.2	11.8	6.5	0.0	0.0	0.0	100.0	
80 이상	빈도	27	53	5	3	4	7	3	4	1	0	107	
	비율	25.2	49.5	4.7	2.8	3.7	6.5	2.8	3.7	0.9	0.0	100.0	
전체	빈도	151	138	20	10	14	44	16	6	1	0	400	
	비율	37.8	34.5	5.0	2.5	3.5	11.0	4.0	1.5	0.3	0.0	100.0	

p* < .05, p** < .01, p*** < .001

<표 38> 복지관 기능인식 1순위(연령)

◦ 복지관 기능인식 조사 결과, 60-64세, 65-69세, 70-74세는 평생교육 활성화 기능이 가장 높았고, 75세 이상은 건강증진도모 기능이 가장 높았음.

②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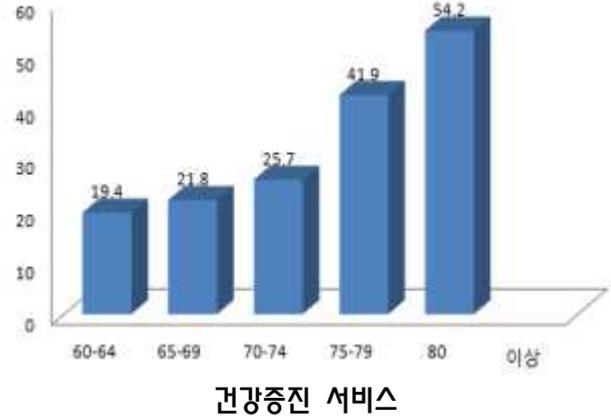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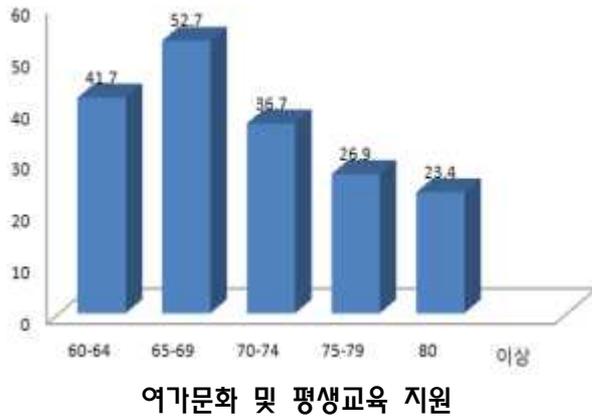
		여가문화 평생교육	건강증 진	상담 지원	정서 사회 생활	사회 참여 활동	일자리 지원	위기관리 독거 노인 지원	노인권 익 서비스	베이비 부머 지원	기타	전체	x ² (p)
60-64	빈도	15	7	5	0	4	4	1	0	0	0	36	60.991*** (.000)
	비율	41.7	19.4	13.9	0.0	11.1	11.1	2.8	0.0	0.0	0.0	100.0	
65-69	빈도	29	12	3	0	2	7	2	0	0	0	55	
	비율	52.7	21.8	5.5	0.0	3.6	12.7	3.6	0.0	0.0	0.0	100.0	
70-74	빈도	40	28	10	2	4	20	5	0	0	0	109	
	비율	36.7	25.7	9.2	1.8	3.7	18.3	4.6	0.0	0.0	0.0	100.0	
75-79	빈도	25	39	5	1	3	15	3	0	2	0	93	
	비율	26.9	41.9	5.4	1.1	3.2	16.1	3.2	0.0	2.2	0.0	100.0	
80 이상	빈도	25	58	4	4	3	5	7	0	1	0	107	
	비율	23.4	54.2	3.7	3.7	2.8	4.7	6.5	0.0	0.9	0.0	100.0	
전체	빈도	134	144	27	7	16	51	18	0	3	0	400	
	비율	33.5	36.0	6.8	1.8	4.0	12.8	4.5	0.0	0.8	0.0	100.0	

p* < .05, p** < .01, p*** < .001

<표 39>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연령)

-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조사 결과, 복지관 기능인식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남.
- 60-64세, 65-69세, 70-74세는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지원을 가장 많이 원했고, 75세 이상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음.

[연령대와 원하는 복지서비스]



▶ 연령대 따라 지원하는 서비스를 달리해야 한다.

- 연령대가 낮을수록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서비스를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생활 보다는 건강에 더욱 관심이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됨.

③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

		꼭 참여한다	참여한다	고려해 보겠다	여건이 안된다	참여하지 않는다	계	$\chi^2(p)$
60-64	빈도	7	15	9	1	2	34	60.040*** (.000)
	비율	20.6	44.1	26.5	2.9	5.9	100.0	
65-69	빈도	8	27	14	5	1	55	
	비율	14.5	49.1	25.5	9.1	1.8	100.0	
70-74	빈도	25	59	11	9	5	109	
	비율	22.9	54.1	10.1	8.3	4.6	100.0	
75-79	빈도	29	36	6	14	7	92	
	비율	31.5	39.1	6.5	15.2	7.6	100.0	
80	빈도	23	32	11	17	24	107	
	비율	21.5	29.9	10.3	15.9	22.4	100.0	
전체	빈도	92	169	51	46	39	397	
	비율	23.2	42.6	12.8	11.6	9.8	100.0	

p* < .05, p** < .01, p*** < .001

<표 40>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연령)

◦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가 시행되었을 때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모든 연령에서 참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60-64세 5.9%, 65-69세 1.8%, 70-74세 4.6%, 75-79세 7.6%, 80세 이상 22.4%).

④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

		전문상담	대인관계 상담	심리· 정서상담	성(性)상담	건강상담	기타	계	$\chi^2(p)$
60-64	빈도	3	7	17	1	8	0	36	50.871*** (.000)
	비율	8.3	19.4	47.2	2.8	22.2	0.0	100.0	
65-69	빈도	6	9	18	0	22	0	55	
	비율	10.9	16.4	32.7	0.0	40.0	0.0	100.0	
70-74	빈도	19	19	14	2	55	0	109	
	비율	17.4	17.4	12.8	1.8	50.5	0.0	100.0	
75-79	빈도	8	16	16	0	51	0	91	
	비율	8.8	17.6	17.6	0.0	56.0	0.0	100.0	
80 이상	빈도	4	15	19	2	62	3	105	
	비율	3.8	14.3	18.1	1.9	59.0	2.9	100.0	
전체	빈도	40	66	84	5	198	3	396	
	비율	10.1	16.7	21.2	1.3	50.0	0.8	100.0	

<표 41>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연령)

◦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은 60-69세는 심리·정서 상담을 가장 원했고(60-64세 47.2%, 65-69세 32.7%), 70세 이상은 건강상담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70-74세 50.5%, 75-79세 56.0%, 80세 이상 59.0%).

(3) 학력에 따른 조사결과

◦ 원하는 치매지원서비스($\chi^2=20.509$, $p<.198$)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① 복지관 기능인식

		평생교육 활성화	건강증진 도모	정보공 제	정서 생활원	활동적 노후도모	노후 소 독보장	통합적 문제해결	노인권 익증진	예비노 후지원	기타	전체	x ² (p)
무학	빈도	12	27	2	1	3	3	3	1	0	0	52	88.981*** (.000)
	비율	23.1	51.9	3.8	1.9	5.8	5.8	5.8	1.9	0.0	0.0	100.0	
초등학교 (졸업)	빈도	29	60	5	3	6	15	6	3	1	0	128	
	비율	22.7	46.9	3.9	2.3	4.7	11.7	4.7	2.3	0.8	0.0%	100.0	
중학교 (졸업)	빈도	24	29	8	4	0	12	4	0	0	0	81	
	비율	29.6	35.8	9.9	4.9	0.0	14.8	4.9	0.0	0.0	0.0	100.0	
고등학교 (졸업)	빈도	55	17	5	2	4	13	2	1	0	0	99	
	비율	55.6	17.2	5.1	2.0	4.0	13.1	2.0	1.0	0.0%	0.0	100.0	
대학(교) 졸업이상	빈도	29	5	0	0	1	0	0	1	0	0	36	
	비율	80.6	13.9	0.0	0.0	2.8	0.0%	0.0	2.8	0.0	0.0%	100.0	
전체	빈도	149	138	20	10	14	43	15	6	1	0	396	
	비율	37.6	34.8	5.1	2.5	3.5	10.9	3.8	1.5	0.3	0.0	100.0	

p* < .05, p** < .01, p*** < .001

<표 42> 복지관 기능인식 1순위(학력)

(2) 복지관 기능 인식 2순위

		평생교육 활성화	건강증진 도모	정보공 제	정서 생활원	활동적 노후도모	노후 소 독보장	통합적 문제해결	노인권 익증진	예비노 후지원	기타	전체	x ² (p)
무학	빈도	9	9	6	8	2	4	8	1	3	1	51	60.721** (.006)
	비율	17.6	17.6	11.8	15.7	3.9	7.8	15.7	2.0	5.9	2.0	100.0	
초등학교 (졸업)	빈도	25	29	14	5	5	22	18	4	4	1	127	
	비율	19.7	22.8	11.0	3.9	3.9	17.3	14.2	3.1	3.1	0.8	100.0	
중학교 (졸업)	빈도	10	21	6	11	10	5	7	3	3	2	78	
	비율	12.8	26.9	7.7	14.1	12.8	6.4	9.0	3.8%	3.8%	2.6	100.0	
고등학교 (졸업)	빈도	11	33	7	8	10	10	8	4	4	2	97	
	비율	11.3	34.0	7.2	8.2	10.3	10.3	8.2	4.1%	4.1%	2.1	100.0	
대학(교) 졸업이상	빈도	2	13	5	9	6	0	0	0	0	1	36	
	비율	5.6	36.1	13.9	25.0	16.7	0.0	0.0	0.0%	0.0%	2.8	100.0	
전체	빈도	57	105	38	41	33	41	41	12	14	7	389	
	비율	14.7	27.0	9.8	10.5	8.5%	10.5	10.5	3.1%	3.6%	1.8	100.0	

p* < .05, p** < .01, p*** < .001

<표 43> 복지관 기능인식 2순위(학력)

○ 복지관 기능인식 조사 1순위 결과,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까지는 건강증진 도모기능이 각각 51.9%, 46.9%, 35.8%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이상은 평생교육활성화 기능이 각각 55.6%, 80.6%로 높았음.

②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건강증진	상담지원	정서 및 사회생활	사회여동 참가	일자리 취업지원	위기관리 및 독거노인 지원	노인권익 서비스	배이비 부머지원	기타	전체	x ² (p)
무학	빈도	12	28	1	1	3	5	1	0	1	0	52	83.237*** (.000)
	비율	23.1	53.8	1.9	1.9	5.8	9.6	1.9	0.0	1.9	0.0	100.0	
초 등 학 교 (졸 업 미 다 님)	빈도	25	57	10	3	2	20	10	0	1	0	128	
	비율	19.5	44.5	7.8	2.3	1.6	15.6	7.8	0.0%	0.8	0.0%	100.0	
중 학 교 (졸 업 미 다 님)	빈도	22	31	9	2	1	13	2	0	1	0	81	
	비율	27.2	38.3	11.1	2.5	1.2	16.0	2.5	0.0	1.2	0.0	100.0	
고 등 학 교 (졸 업 미 다 님)	빈도	45	22	7	1	8	12	4	0	0	0	99	
	비율	45.5	22.2	7.1	1.0	8.1	12.1	4.0	0.0	0.0	0.0	100.0	
대 학 (교) 졸 업 이 상	빈도	28	6	0	0	2	0	0	0	0	0	36	
	비율	77.8	16.7	0.0	0.0	5.6	0.0	0.0	0.0	0.0	0.0	100.0	
전 체	빈도	132	144	27	7	16	50	17	0	3	0	396	
	비율	33.3	36.4	6.8	1.8	4.0	12.6	4.3	0.0	0.8	0.0	100.0	

p* < .05, p** < .01, p*** < .001

<표 44>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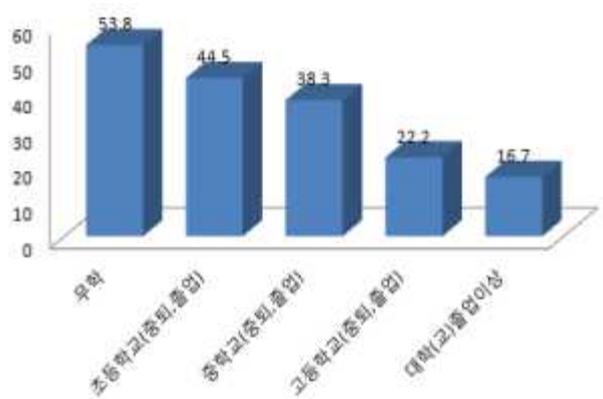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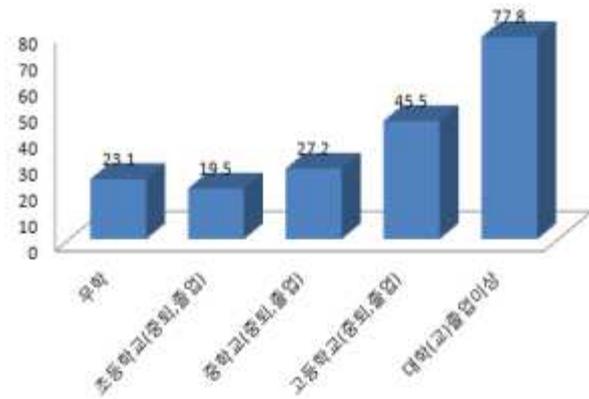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건강증진	상담지원	정서 및 사회생활	사회여동 참가	일자리 취업지원	위기관리 및 독거노인 지원	노인권익 서비스	배이비 부머지원	기타	전체	x ² (p)
무학	빈도	15	8	9	3	5	5	2	1	3	1	52	55.868* (.018)
	비율	28.8	15.4	17.3	5.8	9.6	9.6	3.8	1.9	5.8	1.9	100.0	
초 등 학 교 (졸 업 미 다 님)	빈도	24	33	17	7	6	19	16	1	1	1	125	
	비율	19.2	26.4	13.6	5.6	4.8	15.2	12.8	0.8	0.8	0.8	100.0	
중 학 교 (졸 업 미 다 님)	빈도	12	23	10	6	7	9	4	4	2	1	78	
	비율	15.4	29.5	12.8	7.7	9.0	11.5	5.1	5.1	2.6	1.3	100.0	
고 등 학 교 (졸 업 미 다 님)	빈도	12	34	12	6	4	11	6	10	1	0	96	
	비율	12.5	35.4	12.5	6.3	4.2	11.5	6.3	10.4	1.0	0.0	100.0	
대 학 (교) 졸 업 이 상	빈도	4	10	6	7	4	1	1	1	1	1	36	
	비율	11.1	27.8	16.7	19.4	11.1	2.8	2.8	2.8	2.8	2.8	100.0	
전 체	빈도	67	108	54	29	26	45	29	17	8	4	387	
	비율	17.3	27.9	14.0	7.5	6.7	11.6	7.5	4.4	2.1	1.0	100.0	

p* < .05, p** < .01, p*** < .001

<표 45>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2순위(학력)

-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 조사 결과, 복지관 기능인식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남.
-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까지는 건강증진 서비스가 각각 53.8%, 44.5%, 38.3%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이상은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지원이 각각 45.5%, 77.8%로 높았음.

[학력수준과 원하는 복지서비스]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지원

건강증진 서비스

▶ 학력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서비스를 달리해야 한다.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증진 서비스를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려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③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 의향

		꼭 참여한다	참여한다	고려해 보겠다	여건이 안된다	참여하지 않는다	계	$\chi^2(p)$
무학	빈도	12	18	7	5	10	52	37.004** (.002)
	비율	23.1	34.6	13.5	9.6	19.2	100.0	
초등학교 (중퇴,졸업)	빈도	27	51	12	23	14	127	
	비율	21.3	40.2	9.4	18.1	11.0	100.0	
중학교 (중퇴,졸업)	빈도	19	30	12	13	7	81	
	비율	23.5	37.0	14.8	16.0	8.6	100.0	
고등학교 (중퇴,졸업)	빈도	18	50	16	5	8	97	
	비율	18.6	51.5	16.5	5.2	8.2	100.0	
대학(교) 졸업이상	빈도	15	19	2	0	0	36	
	비율	41.7	52.8	5.6	0.0	0.0	100.0	
전체	빈도	91	168	49	46	39	393	
	비율	23.2	42.7	12.5	11.7	9.9	100.0	

p* < .05, p** < .01, p*** < .001

<표 46>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 의향(학력)

◦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가 시행되었을 때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모든 학력수준에서 참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반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무학 19.2%, 초등학교 졸업 11.0%, 중학교 졸업 8.6%, 고등학교 졸업 8.2%, 대학(교)졸업이상 0.0%).

④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

		소외된 이웃 봉사활동	재능 봉사활동	지역 사회 공헌 활동	노인 권익 신장 활동	1-3세 대 통합 활동	경제 활동	기타	계	$\chi^2(p)$
무학	빈도	18	5	8	2	4	7	7	51	52.211*** (.001)
	비율	35.3	9.8	15.7	3.9	7.8	13.7	13.7	100.0	
초등학교 (중퇴졸업)	빈도	49	14	14	6	12	19	11	125	
	비율	39.2	11.2	11.2	4.8	9.6	15.2	8.8	100.0	
중학교 (중퇴졸업)	빈도	30	9	10	6	5	16	4	80	
	비율	37.5	11.3	12.5	7.5	6.3	20.0	5.0	100.0	
고등학교 (중퇴졸업)	빈도	44	22	7	8	2	11	4	98	
	비율	44.9	22.4	7.1	8.2	2.0	11.2	4.1	100.0	
대학(교) 졸업이상	빈도	9	16	3	2	5	0	1	36	
	비율	25.0	44.4	8.3	5.6	13.9	0.0	2.8	100.0	
전체	빈도	150	66	42	24	28	53	27	390	
	비율	38.5	16.9	10.8	6.2	7.2	13.6	6.9	100.0	

p* < .05, p** < .01, p*** < .001

<표 47>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학력)

◦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을 묻는 질문에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에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이 각각 35.3%, 39.2%, 37.5%, 44.9%로 가장 높았음. 반면, 대학(교) 졸업이상에서는 재능을 활용한 사회봉사활동이 44.4%로 가장 높았음.

⑤ 원하는 상담내용

		전문 상담	대인관계 상담	심리·정서 상담	성(性)상 담	건강 상담	기타	계	$\chi^2(p)$
무학	빈도	4	6	6	1	35	0	52	49.232*** (.000)
	비율	7.7	11.5	11.5	1.9	67.3	0.0	100.0	
초등학교 (중퇴졸업)	빈도	9	21	20	0	77	0	127	
	비율	7.1	16.5	15.7	0.0	60.6	0.0	100.0	
중학교 (중퇴졸업)	빈도	9	11	18	0	40	2	80	
	비율	11.3	13.8	22.5	0.0	50.0	2.5	100.0	
고등학교 (중퇴졸업)	빈도	9	21	30	2	36	0	98	
	비율	9.2	21.4	30.6	2.0	36.7	0.0	100.0	
대학(교) 졸업이상	빈도	8	7	9	2	8	1	35	
	비율	22.9	20.0	25.7	5.7	22.9	2.9	100.0	
전체	빈도	39	66	83	5	196	3	392	
	비율	9.9	16.8	21.2	1.3	50.0	0.8	100.0	

p* < .05, p** < .01, p*** < .001

<표 48> 원하는 상담내용(학력)

◦ 원하는 상담내용을 묻는 질문에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에서는 건강상담이 각각 67.3%, 60.6%, 50.0%로 다른 상담내용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한편, 고등학교 졸업에서는 건강상담 36.7%, 심리·정서 상담 30.6% 순으로 나타났고, 대학(교)졸업이상에서는 심리·정서상담 25.7%, 전문상담과 건강상담 22.9%, 대인관계상담이 20.0% 순으로 나타남.

4) 인구특성별 지역사회 만족도 및 복지관 이용 만족도

(1) 인구특성별 지역사회 만족도

변인	구분	N	M	SD	T / F (p)
성별	남	105	26.76	4.42	0.992(0.322)
	여	292	26.26	4.36	
연령대	A60-64세	36	28.02	3.53	3.472(0.008)** Tukey: D < A
	B65-69세	55	27.50	5.05	
	C70-74세	109	25.80	4.40	
	D75-79세	93	25.58	5.05	
	E80세 이상	106	26.46	3.39	
현거주지역	청룡노포동	24	26.25	2.23	1.535(0.143)
	남산동	41	25.04	3.63	
	구서동	63	27.19	4.90	
	장전동	63	27.23	4.61	
	부곡동	104	26.27	4.34	
	서동	64	25.67	4.82	
	금사동	21	26.85	4.16	
	선구두공	11	27.09	4.08	
	금성동	8	24.37	4.30	
금정구 거주기간	5년이하	58	26.70	4.64	1.252(0.118)
	6~10년	45	25.77	3.50	
	11~15년	20	25.20	4.45	
	16~20년	61	26.83	3.83	
	21~25년	20	28.40	3.51	
	26~30년	47	25.53	5.11	
	31~35년	14	27.21	2.96	
	36~40년	60	26.46	4.02	
	40년 이상	72	25.84	5.01	
학력	A무학	52	25.55	4.08	3.571(0.007)** Tukey: A < E
	B초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128	25.50	3.83	
	C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80	26.62	4.08	
	D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99	26.91	4.47	
	E대학(교) 졸업 이상	36	28.02	5.79	
가족형태 (동거자 유무)	독거	154	24.69	4.33	-6.212(0.000)***
	동거자 있음	244	27.36	4.06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비수급	317	26.67	4.08	2.838(0.006)**
	수급	73	24.87	5.05	

p* < .05, p** < .01, p*** < .001

<표 49> 인구특성별 지역사회 만족도

-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만족도를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을 비교해본 결과, 연령대, 학력, 가족형태(동거자 유무),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른 지역사회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연령대에 따른 지역사회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60-64세 집단(M=28.02)의 지역사회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65-69세(M=27.50), 80세 이상(M=26.46), 70-74세(M=25.80), 75-79세(M=25.58)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으로 Tukey 분석을 수행하였고, 60-64세 집단이 75-79세 집단보다 지역사회 만족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따른 지역사회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M=28.02)의 지역사회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졸업(M=26.91), 중학교 졸업(M=26.62), 무학(M=25.55), 초등학교 졸업(M=25.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으로 Tukey 분석을 수행하였고, 대학(교)졸업 이상 집단이 무학 집단보다 지역사회 만족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형태(동거자 유무)에 따른 지역사회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동거자가 있는 집단(M=27.36)이 독거집단(M=24.69)보다 만족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에 따른 지역사회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수급 집단(M=26.67)이 수급집단(M=24.87)보다 만족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인구특성별 복지관 이용 만족도

변인	구분	N	M	SD	T/F(p)
성별	남	77	34.94	7.69	-.119(0.906)
	여	114	35.07	6.45	
연령대	A60-64세	8	41.37	7.48	1.944(0.105)
	B65-69세	29	34.72	7.33	
	C70-74세	61	34.80	6.13	
	D75-79세	55	34.90	7.27	
	E80세 이상	40	33.92	7.24	
현거주지역	청룡노포동	13	34.53	.306	2.779(210.007)** 하나이상의 집단이 하나 이상의 케이스를 가지므로 복지관 이용 만족도에 대한 사후검정을 수행할 수 없음.
	남산동	23	33.56	5.12	
	구서동	33	35.90	6.79	
	장전동	28	36.78	6.05	
	부곡동	53	36.77	6.47	
	서동	28	31.35	6.23	
	금사동	8	34.37	5.87	
	선구두공	6	28.83	13.27	
	금성동	1	27.00	.00	
금정구 거주기간	5년이하	28	35.78	8.08	0.444(0.893)
	6~10년	24	35.04	4.95	
	11~15년	11	35.00	5.07	
	16~20년	28	36.17	8.44	
	21~25년	12	35.33	5.61	
	26~30년	26	35.11	6.23	
	31~35년	5	34.40	7.09	
	36~40년	32	33.62	8.41	
	40년 이상	26	33.46	6.26	
학력	A무학	21	33.61	9.75	3.005(0.020)* Tukey:B<E
	B초등학교(중퇴 또는 졸업)	5	33.79	6.11	
	C중학교(중퇴 또는 졸업)	32	34.46	7.31	
	D고등학교(중퇴 또는 졸업)	50	34.84	6.22	
	E대학(교) 졸업 이상	30	38.76	6.07	
가족형태 (동거자 유무)	독거	82	33.37	6.31	-2.592(0.010)**
	동거자 있음.	110	35.99	7.31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비수급	137	34.89	6.82	0.129(0.898)
	수급	49	34.73	7.88	

p* < .05, p** < .01, p*** < .001

<표 50> 인구특성별 복지관 이용 만족도

-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관 이용 만족도를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을 비교해본 결과, 현 거주지역, 학력, 가족형태(동거자 유무)에 따른 복지관 이용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현 거주지역에 따른 지역사회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장전동 거주 집단(M=36.78)의 복지관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부곡동(M=36.77), 구서동(M=35.90), 청룡노포동(M=34.53), 금사동(M=34.37), 남산동(M=33.56), 서동(M=31.35), 선두구동(M=28.83), 금성동(M=27.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에 따른 복지관 이용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M=38.76)의 지역사회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졸업(M=34.84), 중학교 졸업(M=34.46), 초등학교 졸업(M=33.79), 무학(M=33.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으로 Tukey 분석을 수행하였고, 대학(교)졸업 이상 집단이 초등학교 졸업 집단보다 지역사회 만족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형태(동거자 유무)에 따른 복지관 이용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동거자가 있는 집단(M=35.99)이 독거집단(M=33.37)보다 만족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지역사회 만족도와 복지관 이용 만족도 등의 관련성

	연령	거주기간	지역사회 만족도	복지관 이용 만족도
연령	1			
거주기간	.159**	1		
지역사회 만족도	-.106*	-.025	1	
복지관 이용 만족도	-.114	-.109	.360**	1

p* < .05, p** < .01, p*** < .001

<표 51> 인구특성별 복지관 이용 만족도

- 지역사회 만족도와 복지관 이용 만족도를 중심으로 주요변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함.
- 지역사회 만족도는 연령(R=.106)이 음의 방향으로 관련성이 가장 높았음.
- 복지관 이용 만족도는 지역사회 만족도(R=.360)가 양의 방향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6) 지역사회 만족도와 복지관 이용만족도 요인 분석

(1) 지역사회 만족도 영향 요인

변수	B	표준오차	β	t	VIF
이용여부	.983	.452	.115	2.173*	1.177
성별	-.008	.534	-.001	-.014	1.279
연령	.066	.196	.020	.338	1.410
거주지역	-.100	.120	-.042	-.883	1.076
거주기간	-.017	.075	-.011	-.228	1.059
학력	.438	.222	.123	1.975*	1.619
동거자유무	2.002	.492	.227	4.066***	1.317
수급여부	-.348	.582	-.031	-.598	1.159

R²=.106 / Adjusted R²=.087 / F=5.594*** / Durbin-Watson=1.857

p* < .05, p** < .01, p*** < .001

이용여부(이용=1, 비이용=2), 성별(남성=1, 여성=2), 동거자유무(동거=1, 동거자유=2), 수급여부(비수급=1, 수급=2)

<표 52> 지역사회 만족도 영향 요인

- 지역사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VIF값이 3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사회 만족도에서 설명력은 10.6%(R²=.106)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p<.001).
-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계수로는 이용여부(β =.115), 학력(β =.123), 동거자 유무(β =.227)로 나타남. 즉,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 동거자가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복지관 이용만족도 영향 요인

변수	B	표준오차	β	t	VIF
성별	1.688	1.085	.118	1.556	1.193
연령	.306	.534	.048	.574	1.467
거주지역	-.298	.290	-.074	-1.029	1.057
거주기간	-.202	.196	-.079	-1.034	1.197
학력	.760	.494	.139	1.536	1.690
동거자유무	1.079	1.250	.076	.864	1.596
수급여부	2.271	1.199	.141	1.895	1.140
지역사회만족도	.443	.112	.299	3.963***	1.174

R²=.160 / Adjusted R²=.121 / F=4.121*** / Durbin-Watson=1.953

p* < .05, p** < .01, p*** < .001

이용 여부 (이용 = 1, 비이용 = 2), 성별 (남성 = 1, 여성 = 2), 동거 자유무 (동거 = 1, 동거 자유 = 2), 수급 여부 (비수급 = 1, 수급 = 2)

<표 53> 복지관 이용 만족도 영향 요인

- 복지관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VIF값이 3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복지관 이용만족도에서 설명력은 16.0%(R²=.160)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p<.001).
-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계수로는 지역사회 만족도(β =.299)로 나타남. 즉,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복지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베이비부머 세대 (1955년 ~ 1963년)

1) 일반내용 조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
성별 (N=98)	남성	22	22.4
	여성	76	77.6
연령 (N=100)	55세 이하	15	15.0
	56 ~ 60세	65	65.0
	61 ~ 65세	20	20.0
거주지역 (N=100)	청룡노포동	11	11.0
	남산동	19	19.0
	구서동	24	24.0
	장전동	5	5.0
	부곡동	21	21.0
	서동	15	15.0
	금사동	4	4.0
	선두구동	1	1.0
	금성동	0	0.0
거주기간 (N=99)	5년이하	8	8.1
	6~10년	7	7.1
	11~15년	14	14.1
	16~20년	21	21.2
	21~25년	14	14.1
	26~30년	15	15.2
	31~35년	6	6.1
	31~35년	7	7.1
	36~40년	7	7.1
학력 (N=99)	무학	0	0.0
	초등학교(중퇴, 졸업)	3	3.0
	중학교(중퇴, 졸업)	16	16.2
	고등학교(중퇴, 졸업)	47	47.5
	대학(교)졸업이상	33	33.3

	구분	N	%
직업 (N=97)	경영,관리직	5	5.2
	전문직	4	4.1
	기술직	2	2.1
	사무직	14	14.4
	판매,서비스직	7	7.2
	자영업	12	12.4
	생산,단순노무직,기능직	8	8.2
	농업/어업/임업	0	0.0
	전업주부	7	32.0
	직업없음	7	7.2
	기타	97	7.2
가족형태 (N=100)	혼자	7	7.0
	부부	30	30.0
	부부+자녀	58	58.0
	부부+자녀+부모	2	2.0
	부부+자녀+손자녀	1	1.0
기타	2	2.0	
자녀수 (N=100)	0명	4	4.0
	1명	12	12.0
	2명	73	73.0
	3명	11	11.0
주거소유형태 (N=100)	자가	83	83.0
	전세	13	13.0
	전월세	3	3.0
	무상임대	1	1.0
	기타	0	0.0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N=100)	해당없음	98	98.0
	일반수급(1종)	1	1.0
	조건부수급(2종)	0	0.0
	차상위계층(1, 2종)	0	0.0
	법정 모부자가정	0	0.0
기타	1	1.0	

<표 54> 인구학적 특성(베이비부머)

- 남성은 22.4%, 여성은 77.6%임. 연령은 56 ~60세가 65.0%를 차지함.
- 거주지역은 구서동이 24.0%로 가장 많았고, 부곡동이 21.0%, 남산동이 19.0%, 서동이 15.0%, 청룡노포동 11.0% 순으로 나타남.

- 금정구 거주기간은 16~20년이 21.2%로 가장 많았고, 26~30년이 15.2%, 11~15년, 21~25년이 14.1% 순으로 나타남.
-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 33.3%, 중학교 졸업 16.2%, 초등학교 졸업 3.0% 순으로 나타남.
- 직업은 전업주부가 3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직 14.4%, 자영업 12.4% 순으로 나타남.
-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 거주가 5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부 3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는 2명이 73.0%로 가장 많았음.
- 주거소유형태는 자가 83.0%로 가장 많았고, 수급여부는 비수급이 98.0%로 나타남.

(2) 금정구노인복지관에 대한 인식

① 복지관 인지도

구분	빈도	퍼센트
잘모름	25	25.0
알지만 이용안함	58	58.0
이용하고 있음	17	17.0
합계	100	100.0

<표 55> 복지관 인지도(베이비부머)

- 금정구노인복지관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알지만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0%로 가장 높고, 잘모른다는 응답이 25.0%, 이용하고 있음이 17.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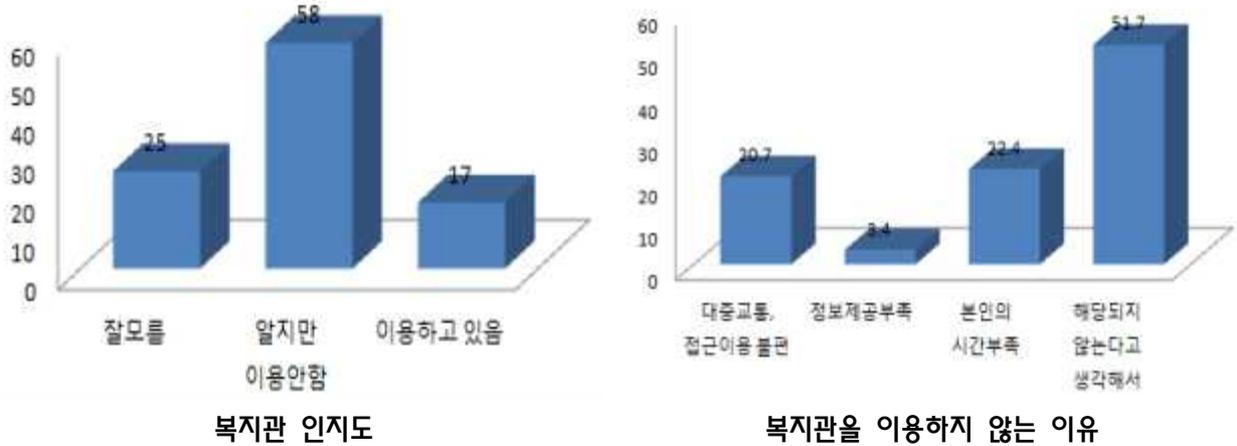
②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대중교통, 접근이용 불편	12	20.7
시설불편, 낙후됨	0	0
낮은 서비스 질	0	0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적 불편	0	0
정보제공부족	2	3.4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0	0
이용시간대 제한	0	0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0	0
본인의 시간부족	13	22.4
비용부담	0	0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30	51.7
기타	1	1.7
합계	58	100

<표 56>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베이비부머)

◦ 복지관을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본인이 노인복지관 이용자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 5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본인의 시간부족 22.4%, 대중교통, 접근이용 불편이 20.7%로 나타남.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복지관 이용 인식]



▶ 노인복지관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응답자의 58.0%는 복지관을 알고는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51.7%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복지관 이용자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응답함.
- 예비노인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에 대한 인식개선과 베이비부머 세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③ 복지관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체력증진 위해	5	12.2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22	53.7
동년배와의 교제	6	14.6
무료한 시간탈피	4	9.8
편의시설 이용	1	2.4
일자리마련	2	4.9
기타	1	2.4
합계	41	100.0

<표 57> 복지관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베이비부머)

◦ 복지관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가 5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년배와의 교제 14.6%, 체력증진을 위해 12.2% 순으로 높게 나타남.

④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

구분	빈도	퍼센트
55세부터	4	4.0
60세부터	24	24.0
65세부터	51	51.0
70세부터	21	21.0
합계	100	100.0

<표 58>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베이비부머)

◦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을 묻는 질문에 65세 부터가 5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0세부터 24.0%, 70세부터 21.0%, 55세부터 4.0% 순으로 높게 나타남.

⑤ 중장년층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인지 경로

구분	빈도	퍼센트
친구나 이웃	32	32.0
인터넷	15	15.0
가족	2	2.0
관공서	10	10.0
지역신문	20	20.0
관련민간기관이나 단체	3	3.0
복지관직원	16	16.0
기타	2	2.0
합계	100	100.0

<표 59>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베이비부머)

◦ 중장년층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에는 친구나 이웃이 3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신문 20.0%, 복지관 직원 16.0%, 인터넷 15.0%, 관공서 10.0% 순으로 나타남.

(3) 베이비부머의 일반적 욕구

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신체적 건강	64	64.0	17	17.2	81	28.2
정신적 건강	11	11.0	14	14.1	25	20.2
경제적 풍요	9	9.0	33	33.3	42	21.2
가족관계	10	10.0	14	14.1	24	11.1
인간관계	6	6.0	15	15.2	21	4.3
사회적지위	0	0	1	1.0	1	1.9
쾌적한 주거상태	0	0	5	5.1	5	13.0
기타	0	0	0	0.0	0	0.0
합계	100	100.0	99	100.0	199	100.0

<표 60>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베이비부머)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파악한 결과, 1순위에서는 신체적 건강이 64.0%로 가장 많았고, 정신적 건강 11.0%, 가족관계 1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2순위에서는 경제적 풍요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건강이 17.2%, 인간관계 15.2%, 정신적 건강, 가족관계 14.1% 순으로 나타남.

② 은퇴이후 지향하는 삶의 스타일

구분	빈도	퍼센트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	31	31.3
학습과 같은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18	18.2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의미 있는 활동	32	32.3
종교활동에 전념	6	6.1
소득창출을 위한 활동	9	9.1
가사활동 또는 손자녀양육	3	3.0
기타	0	0.0
합계	100	100.0

<표 61> 은퇴이후 지향하는 삶의 스타일(베이비부머)

◦ 은퇴이후 지향하는 삶의 스타일을 묻는 질문에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의미 있는 활동이 3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 31.3%, 학습과 같은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18.2% 순으로 높게 나타남.

③ 성공적 노후를 위한 필요 준비사항

구분	빈도	퍼센트
재정관리	22	22.0
건강관리	46	46.0
여가생활 및 사회활동준비	14	14.0
일자리준비	12	12.0
원만한가족관계 준비	0	0.0
사회적관계유지준비	6	6.0
기타	0	0.0
합계	100	100.0

<표 62> 성공적 노후를 위한 필요 준비사항(베이비부머)

◦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으로 건강관리가 4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재정관리 22.0%, 여가생활 및 사회활동 준비 14.0%, 일자리 준비 12.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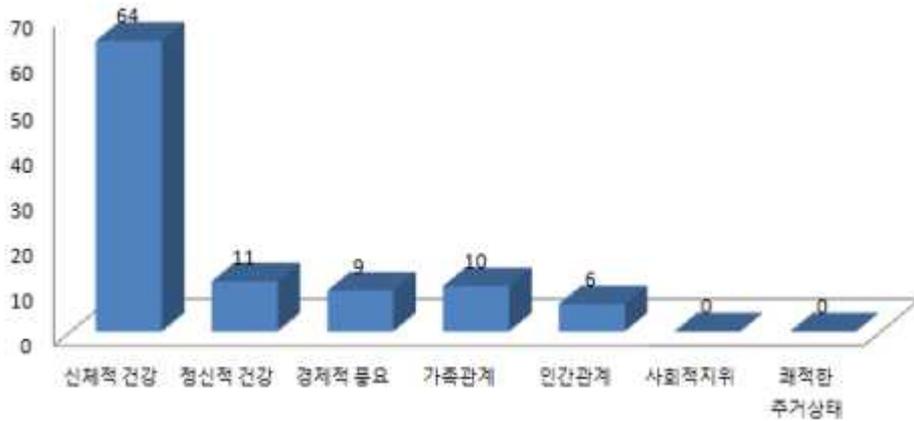
④ 은퇴 후 불안한 요소

구분	빈도	퍼센트
건강문제	45	45.0
경제적 어려움	34	34.0
죽음두려움	2	2.0
자녀문제	5	5.0
사회적 역할상실	11	11.0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1	1.0
거주문제	1	1.0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냄	0	0
기타	1	1.0
합계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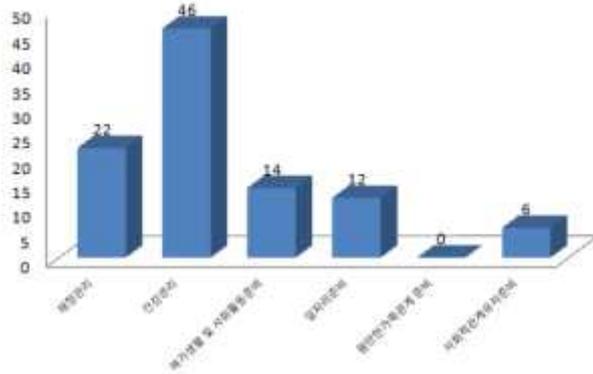
<표 63> 성공적 노후를 위한 필요 준비사항(베이비부머)

◦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 건강문제가 4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 34.0%, 사회적 역할 상실 11.0%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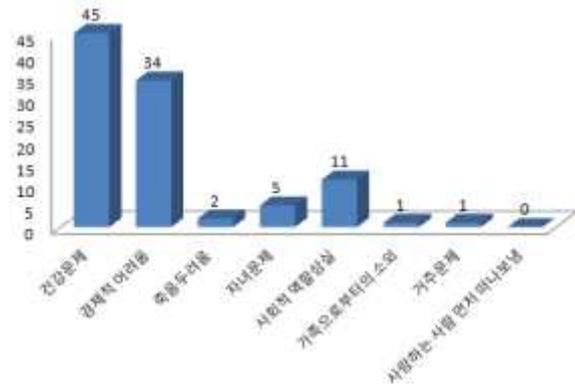
[베이비부머 세대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필요 준비사항



은퇴 후 불안한 요소

▶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건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 은퇴 후 불안한 요소에 대한 질문에 모두 건강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노인과 마찬가지로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⑤ 노후 함께 살고 싶은 사람

구분	빈도	퍼센트
아들과 함께	1	1.0
딸과 함께	2	2.0
형편 되는 자녀	6	6.0
부부끼리 또는 혼자	89	89.0
기타	2	2.0
합계	100	100.0

<표 64> 성공적 노후를 위한 필요 준비사항(베이비부머)

◦ 노후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을 묻는 문항에 부부끼리 혹은 혼자 8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형편 되는 자녀가 6.0%로 나타남.

⑥ 보험가입 여부

구분	내용	본인		배우자		해당없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건강요양위험	질병, 실손보험, 교통사고, 장기요양 등	85.7	14.3	80.5	8.5	11.0
사망위험	종신보험, 상조회사 등	49.4	50.6	40.6	43.5	15.9
노후소득보장	개인연금, 국민연금 등	82.3	17.7	83.3	5.1	11.5
목돈 마련	적금, 계돈 등	54.1	45.9	50.7	32.8	16.4

<표 65> 보험가입 여부(베이비부머)

◦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대비를 위한 저축, 민간 또는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질문에 건강요양위험에 대한 보험가입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85.7%, 80.5%로 높게 나타남. 사망위험에 대한 보험가입은 50%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입하고 있었고(본인 49.4%, 배우자 40.6%),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험은 본인 82.3%, 배우자 83.3%로 나타남. 목돈 마련을 위한 보험가입은 본인 54.1%, 배우자 50.7%로 나타남.

(4) 베이비부머의 복지욕구

① 복지관 기능 인식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활성화	60	60.0	6	6.0	66	42.0
건강증진도모	16	16.0	21	21.0	37	17.7
정보제공	6	6.0	6	6.0	12	6.0
정서생활지원	3	3.0	7	7.0	10	4.3
활동적노후도모	3	3.0	17	17.0	20	7.7
노후소득보장	3	3.0	11	11.0	14	5.7
통합적문제해결	4	4.0	9	9.0	13	5.7
노인권익증진	1	1.0	7	7.0	8	3.0
예비노인노후복지지원	4	4.0	15	15.0	19	7.7
기타	0	0.0	1	1.0	1	0.3
합계	100	100.0	100	100.0	200	100.0

<표 66> 복지관 기능 인식(베이비부머)

◦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묻는 문항에 1순위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 기능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증진 도모 기능 16.0%, 정보제공 기능 6.0% 순으로 나타남. 2순위에서는 건강증진 도모 기능이 21.0%로 가장 많았고, 활동적 노후도모 17.0%, 노후 소득보장 11.0% 순으로 나타남.

②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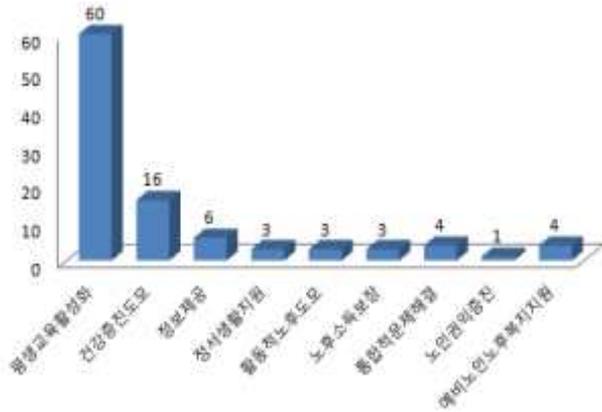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퍼센트	최종순위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46	46.5	7	7.1	33.4	1
건강증진	30	30.3	21	21.4	27.4	2
상담지원	5	5.1	8	8.2	6.1	6
정서 및 사회생활	3	3.0	4	4.1	3.4	7
사회참여활동	4	4.0	13	13.3	7.1	4
일자리와 취업지원	4	4.0	12	12.2	6.8	5
위기관리 및 독거노인지원	3	3.0	2	2.0	2.7	9
노인권익서비스	0	0.0	9	9.2	3.0	8
베이비부머지원	4	4.0	22	22.4	10.1	3
기타	0	0.0	0	0.0	0.0	10
합계	99	100.0	98	100.0	100.0	

<표 67>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베이비부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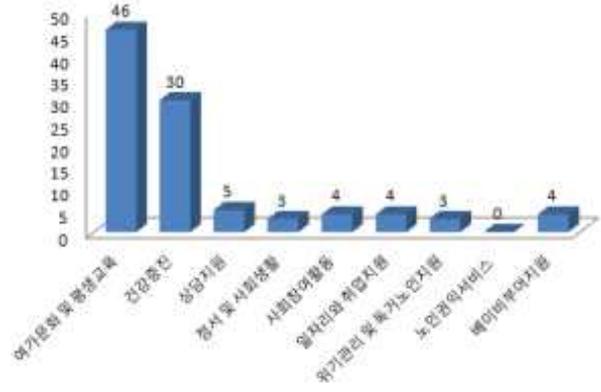
◦ 노인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를 묻는 문항에 1순위에서는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지원이 4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강증진 서비스가 30.3%로 나타남. 2순위에서는 베이비부머 지원이 22.4%로 가장 많았고, 건강증진 21.4%, 사회참여활동 13.3%, 일자리와 취업지원 12.2% 순으로 나타남.

[인식하는 노인복지관 기능 vs 원하는 노인복지관 서비스]

[베이비부머 세대도 평생교육지원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원함]



인식하는 노인복지관 기능



원하는 노인복지관 서비스

▶ 인식하는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원하는 노인복지관 서비스가 일치한다.

-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노인복지관을 평생교육 활성화 기능,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인지하고 있음.
-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역시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지원, 건강증진 서비스임.

▶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노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원함.

-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노인과 동일하게 여가시간을 활기차게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지원과 신체적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원하고 있음(인식하는 노인복지관 기능 76.0%, 원하는 노인복지관 서비스 76.0%).

③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

구분	빈도	퍼센트
꼭 참여할것임	21	21.2
참여할것임	46	46.5
고려해보겠음	27	27.3
참여하고 싶으나 여건이 안됨	5	5.1
참여할 의사없음	0	0.0
합계	99	100.0

<표 68>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베이비부머)

◦ 받고 싶은 서비스 시행 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참여하겠다고 한 응답이 67.7%로 높게 나타남.

④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의 역할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노인의 소모임을 위한 공간	36	36.4	6	6.1	42	26.4
동네 이웃관계 개선	4	4.0	11	11.2	15	6.4
건강증진 시설확충	31	31.3	20	20.4	51	27.7
주거환경개선 및 보급	3	3.0	5	5.1	8	3.7
노인고독사 문제해결	4	4.0	5	5.1	9	4.4
거주지 안전문제 개선	2	2.0	3	3.1	5	2.4
은퇴노인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주민모임	8	8.1	20	20.4	28	12.2
동네환경문제 개선	0	0.0	2	2.0	2	0.7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업	11	11.1	14	14.3	25	12.2
치매노인 및 가족지원	0	0.0	12	12.2	12	4.1
기타	0	0.0	0	0.0	0	0.0
합계	99	100.0	98	100.0	197	100.0

<표 69>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의 역할(베이비부머)

◦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지역 안에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1순위에서는 노인의 소모임을 위한 공간 마련이 3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증진 시설확충 31.3%, 은퇴노인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주민모임이 11.1%로 높게 나타남. 2순위에서는 건강증진 시설확충과 은퇴노인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주민모임이 각각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업 14.3%, 치매노인 및 가족지원 12.2%, 동네 이웃관계 개선 11.2% 순으로 나타남.

⑤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

구분	빈도	퍼센트
소외이웃봉사활동	31	31.3
재능활용봉사활동	26	26.3
지역사회공헌활동	8	8.1
노인권익신장활동	4	4.0
1-3세대통합활동	10	10.1
경제활동	19	19.2
기타	1	1.0
합계	99	100.0

<표 70>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베이비부머)

◦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중 원하는 활동의 유형을 묻는 문항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이 31.3%로 가장 높았고, 재능을 활용한 사회봉사활동 26.3%, 경제활동 19.2% 순으로 나타남.

⑥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

구분	빈도	퍼센트
전문상담	11	11.0
대인관계상담	17	17.0
심리정서상담	24	24.0
성상담	1	1.0
건강상담	46	46.0
기타	1	1.0
합계	100	100.0

<표 71> 원하는 상담서비스 내용(베이비부머)

◦ 다양한 상담서비스 중 원하는 상담 내용을 묻는 문항에 건강상담이 46.0%로 가장 많았고, 심리정서 상담 24.0%, 대인관계 상담 17.0%, 경제, 법률, 세무 등 전문상담 11.0% 순으로 나타남.

⑦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34	34.3
치매예방 프로그램	30	30.3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인 프로그램	16	16.2
치매환자가족 프로그램	19	19.2
기타	0	0.0
합계	99	100.0

<표 72>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베이비부머)

◦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를 묻는 문항에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34.3%로 가장 높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30.3%, 치매환자 가족 프로그램 19.2%,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인 프로그램 16.2% 순으로 나타남.

(5) 지역사회 만족도

구 분	N	M	SD
건강	100	3.03	.731
가족관계(자녀 또는 부모)	99	3.70	.801
경제적 여건(소득)	99	3.10	.763
직업(일자리)	98	3.02	.908
사회참여(단체, 조직 활동)	98	3.16	.684
사회적 친분관계	99	3.30	.692
여가생활	98	3.12	.816
전반적 만족도	99	3.25	.733
지역사회 만족합	100	3.2073	.56216

<표 73> 지역사회 만족도(베이비부머)

◦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만족도는 3.2점으로 보통이라는 3점보다 높았음.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관계가 3.70으로 가장 높았고, 직업(일자리)가 3.02점으로 가장 낮았음.

(6) 사회적 자본 수준

구 분	N	M	SD
신뢰	100	3.2400	.56636
규범	99	3.4714	.64639
참여	99	3.1801	.59639
네트워크	100	3.3483	.55459
사회자본	100	3.2953	.48322

<표 74> 사회적 자본 수준(베이비부머)

◦ 사회적 자본 수준은 5점 만점에 3.29점으로 나타남. 4가지 영역 모두 3점대를 보이고 있으며, 규범이 3.47점으로 가장 높았고, 참여가 3.18점으로 가장 낮았음.

2) 인구특성별 베이비부머의 일반적 욕구

(1) 성별에 따른 조사결과

-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1순위($\chi^2=4.989$, $p<.288$),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2순위($\chi^2=7.358$, $p<.289$), 은퇴 이후 지향하는 삶의 스타일($\chi^2=9.150$, $p<.103$), 성공적 노후를 위한 필요 준비사항($\chi^2=7.819$, $p<.098$), 은퇴 후 불안한 요소($\chi^2=11.556$, $p<.116$), 노후 함께 살고 싶은 사람($\chi^2=1.705$, $p<.790$)

(2) 연령에 따른 조사결과

-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1순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2순위($\chi^2=59.859$, $p<.481$), 은퇴 이후 지향하는 삶의 스타일($\chi^2=50.064$, $p<.471$), 성공적 노후를 위한 필요 준비사항($\chi^2=31.710$, $p<.822$), 은퇴 후 불안한 요소($\chi^2=61.863$, $p<.745$), 노후 함께 살고 싶은 사람($\chi^2=46.949$, $p<.209$)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①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1순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경제적 풍요	가족관계	인간관계	계	$\chi^2(p)$
55세 이하	빈도	13	0	0	2	0	15	59.031* (.027)
	비율	86.7	0.0	0.0	13.3	0.0	100.0	
56-60	빈도	38	11	7	6	3	65	
	비율	58.5	16.9	10.8	9.2	4.6	100.0	
61-65	빈도	13	0	2	2	3	20	
	비율	65.0	0.0	10.0	10.0	15.0	100.0	
전체	빈도	64	11	9	10	6	100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 < .05$, $p^{**} < .01$, $p^{***} < .001$

<표 75>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1순위(연령) (베이비부머)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신체적 건강을 1순위로 답하였음(55세 이하 86.7%, 56-60세 58.5%, 61-65세 65.0%). 한편, 56-60세에서는 정신적 건강 16.9%, 경제적 풍요 10.8%, 가족관계 9.2%, 인간관계 4.6%로 다양한 답변을 하였음.

(3) 학력에 따른 조사결과

- 노후 함께 살고 싶은 사람 문항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1순위($x^2=10.920$, $p<.536$),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2순위($x^2=9.968$, $p<.933$), 은퇴 이후 지향하는 삶의 스타일($x^2=16.093$, $p<.376$), 성공적 노후를 위한 필요 준비사항($x^2=12.850$, $p<.380$), 은퇴 후 불안한 요소($x^2=9.701$, $p<.983$)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① 노후 함께 살고 싶은 사람

		아들	딸	형편되는 자녀	부부 또는 혼자	기타	전체	$x^2(p)$
초등학교 (중퇴 졸업)	빈도	1	0	1	1	0	3	51.784*** (.000)
	비율	33.3	0.0	33.3	33.3	0.0	100.0	
중학교 (중퇴 졸업)	빈도	0	2	2	12	0	16	
	비율	0.0	12.5	12.5	75.0	0.0	100.0	
고등학교 (중퇴 졸업)	빈도	0	0	24	43	2	47	
	비율	0.0	12.5	12.5	75.0	0.0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빈도	0	0	1	32	0	33	
	비율	0.0	0.0	3.0	97.0	0.0	100.0	
전체	빈도	1	2	6	88	2	99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 < .05$, $p^{**} < .01$, $p^{***} < .001$

<표 76> 노후 함께 살고 싶은 사람(학력) (베이비부머)

-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중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부부 또는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중학교 졸업 75.0%, 고등학교 졸업 75.0%, 대학(교)졸업 이상 97.0%). 초등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아들, 형편이 되는 자녀, 부부 또는 혼자 거주가 33.3%로 동일하게 나타남.

3) 인구특성별 베이비부머의 복지욕구

(1) 성별에 따른 조사결과

-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관 기능 인식 1순위($x^2=15.026$, $p<.059$), 복지관 기능 인식 2순위($x^2=4.409$, $p<.882$),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x^2=11.499$, $p<.118$),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2순위($x^2=7.458$, $p<.590$),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x^2=1.713$, $p<.634$),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 역할 1순위($x^2=8.839$, $p<.264$),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 역할 2순위($x^2=7.458$, $p<.590$),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x^2=10.0348$, $p<.123$), 원하는 상담내용($x^2=6.046$, $p<.302$), 원하는 치매지원서비스($x^2=1.433$, $p<.698$)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연령에 따른 조사결과

-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2순위, 원하는 치매지원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 복지관 기능 인식 1순위($x^2=13.972$, $p<.601$), 복지관 기능 인식 2순위($x^2=18.846$, $p<.401$),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x^2=16.813$, $p<.266$),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x^2=11.150$, $p<.084$),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 역할 1순위($x^2=13.119$, $p<.517$),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 역할 2순위($x^2=13.791$, $p<.743$),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x^2=5.923$, $p<.920$), 원하는 상담내용($x^2=7.375$, $p<.690$)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①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2순위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건강증진	상담지원	정서 및 사회생활	사회참여 활동	일자리와 취업지원	위기관리 및 독거노인 지원	노인권익	베이비부머 지원	기타	계	$x^2(p)$
55세 이하	빈도	3	4	2	0	1	4	0	1	0	0	15
	비율	20.0	26.7	13.3	0.0	6.7	26.7	0.0	6.7	0.0	0.0	100.0
56-60	빈도	3	15	5	1	8	8	1	5	18	0	64
	비율	4.7	23.4	7.8	1.6	12.5	12.5	1.6	7.8	28.1	0.0	100.0
61-65	빈도	1	2	1	3	4	0	1	3	4	0	19
	비율	5.3	10.5	5.3	15.8	21.1	0.0	5.3	15.8	21.1	0.0	100.0
전체	빈도	7	21	8	4	13	12	2	9	22	0	98
	비율	7.1	21.4	8.2	4.1	13.3	12.2	2.0	9.2	22.4	0.0	100.0

27.208*
(.039)

p* $<.05$, p** $<.01$, p*** $<.001$

<표 77>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2순위(연령) (베이비부머)

◦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를 묻는 문항에 55세 이하에서는 건강증진 서비스, 일자리와 취업지원 서비스가 각각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6-60세에서는 베이비부머 지원이 28.1%로 가장 높았음. 61-65세에서는 사회참여활동과 베이비부머 지원이 각각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②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예방 PG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 장애인 PG	치매환자 가족 PG	기타	계	$\chi^2(p)$
55세 이하	빈도	5	9	1	0	0	15	23.850*** (.001)
	비율	33.3	60.0	6.7	0.0	0.0	100.0	
56-60	빈도	29	15	9	12	0	65	
	비율	44.6	23.1	13.8	18.5	0.0	100.0	
61-65	빈도	0	6	6	7	0	19	
	비율	0.0	31.6	31.6	36.8	0.0	100.0	
전체	빈도	34	30	16	19	0	99	
	비율	100.0	100.0	100.0	100.0	0.0	100.0	

p* < .05, p** < .01, p*** < .001

<표 78>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연령) (베이비부머)

◦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55세 이하에서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60.0%로 가장 높았고, 56-60세에서는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44.6%, 61-65세에서는 치매환자가족 프로그램이 36.8%로 가장 높았음.

(3) 학력에 따른 조사결과

◦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 역할 1순위,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복지관 기능 인식 1순위($\chi^2=29.647$, $p<.197$), 복지관 기능 인식 2순위($\chi^2=27.637$, $p<.430$),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1순위($\chi^2=22.023$, $p<.398$), 복지관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2순위($\chi^2=22.848$, $p<.529$), 받고 싶은 서비스 참여의향($\chi^2=4.527$, $p<.873$),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 역할 2순위($\chi^2=29.549$, $p<.335$), 원하는 사회참여활동 유형($\chi^2=19.259$, $p<.376$), 원하는 상담내용($\chi^2=17.098$, $p<.313$)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①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 역할 1순위

		소모임 공간	이웃관계 개선	건강증진 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고독사 문제 해결	주거지 안전	은퇴노인 주민모임	환경문제 개선	베이비부머 사업	치매노인, 가족지원	전체	$\chi^2(p)$
무학	빈도	0	0	0	0	0	0	0	0	0	0	0	32.847*** (.048)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초등학교 (중퇴, 졸업)	빈도	1	0	1	0	0	1	0	0	0	0	3	
	비율	33.3	0.0	33.3	0.0	0.0	33.3	0.0	0.0	0.0	0.0	100.0	
중학교 (중퇴, 졸업)	빈도	6	1	6	0	0	0	1	0	2	0	16	
	비율	37.5	6.3	37.5	0.0	0.0	0.0	6.3	0.0	12.5	0.0	100.0	
고등학교 (중퇴, 졸업)	빈도	16	1	17	3	1	1	6	0	2	0	47	
	비율	34.0	2.1	36.2	6.4	2.1	2.1	12.8	0.0	4.3	0.0	100.0	
대학(교) 졸업이상	빈도	12	2	7	0	3	0	1	0	7	0	32	
	비율	37.5	6.3	21.9	0.0	9.4	0.0	3.1	0.0	21.9	0.0	100.0	
전체	빈도	35	4	31	3	4	2	8	0	11	0	98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100.0	0.0	100.0	

p* < .05, p** < .01, p*** < .001

<표 79>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 역할(학력) (베이비부머)

◦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역 안에서 가장 힘써야 하는 일에 대한 질문에 초등학교 졸업에서는 노인의 소모임을 위한 공간 마련,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주거지 보안 및 안전문제 개선이 모두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중학교 졸업에서는 노인의 소모임을 위한 공간 마련,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이 모두 37.5%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이 36.2%로 가장 높았음. 대학(교)졸업 이상에서는 노인의 소모임을 위한 공간 마련이 37.5%로 가장 높았음.

②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예방 PG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인 PG	치매환자 가족 PG	기타	계	$\chi^2(p)$
무학	빈도	0	0	0	0	0	0	18.306* (.032)
	비율	0.0	0.0	0.0	0.0	0.0	100.0	
초등학교 (중퇴, 졸업)	빈도	3	0	0	0	0	3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중학교 (중퇴, 졸업)	빈도	4	6	3	2	0	15	
	비율	26.7	40.0	20.0	13.3	0.0	100.0	
고등학교 (중퇴, 졸업)	빈도	20	16	7	4	0	47	
	비율	42.6	34.0	14.9	8.5	0.0	100.0	
대학(교) 졸업이상	빈도	7	8	6	12	0	33	
	비율	21.2	24.2	18.2	36.4	0.0	100.0	
전체	빈도	34	30	16	18	0	98	
	비율	100.0	100.0	100.0	100.0	0.0	100.0	

p* < .05, p** < .01, p*** < .001

<표 80>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학력) (베이비부머)

◦ 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초등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에서는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이 각각 100.0%, 42.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졸업에서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40.0%로 가장 높았음. 대학(교)졸업 이상에서는 치매환자 가족 프로그램이 36.4%로 가장 높았음.

4) 지역사회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 등의 관련성

	연령	거주 기간	자녀수	사회적 자본	신뢰	규범	참여	네트 워크	지역 사회 만족도
연령	1								
거주기간	-.007	1							
자녀수	-.097	.057	1						
사회적 자본	-.346**	.007	.011	1					
신뢰	-.268**	.061	.070	.859**	1				
규범	-.169	-.116	.001	.726**	.458**	1			
참여	-.327**	.036	-.012	.814**	.594**	.474**	1		
네트워크	-.295**	.028	-.053	.792**	.599**	.477**	.675**	1	
지역사회 만족도	-.058	.106	.153	.421**	.496**	.287**	.251*	.221*	1

p* < .05, p** < .01, p*** < .001

<표 81> 지역사회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 등의 관련성 (베이비부머)

- 지역사회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주요변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함.
- 지역사회 만족도는 사회적 자본(R=.421)이 양의 방향으로 관련성이 높게 나타남. 사회적 자본의 변인에서는 하위요인인 신뢰(R=.496), 규범(R=.287), 참여(R=.251), 네트워크(R=.221) 모두 양의 방향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자본은 연령(R=-.346)이 음의 방향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지역사회 만족도 요인분석

변수	B	표준오차	β	t	VIF
성별	-.023	1.226	-.002	-.019	1.214
연령	-.062	.822	-.008	-.075	1.099
거주지역	-.499	.276	-.186	-.1.808	1.092
거주기간	.470	.220	.217	2.135*	1.067
학력	1.654	.726	.268	2.277*	1.431
직업	-.002	.197	-.001	-.010	1.386
가족형태	.619	.569	.117	1.087	1.193
자녀수	-.158	.881	-.019	-.179	1.212
주거소유형태	-.579	.968	-.066	-.598	1.247
수급여부	-8.362	4.789	-.179	-.1.746	1.090

R²=.208 / Adjusted R²=.112 / F=2.158* / Durbin-Watson=1.804

p* < .05, p** < .01, p*** < .001

성별 (남성 = 1, 여성 = 2), 수급여부 (비수급 = 1, 수급 = 2)

<표 82> 지역사회 만족도 요인분석 (베이비부머)

- 지역사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VIF값이 3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사회 만족도에서 설명력은 20.8%(R²=.208)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p<.001).
-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계수로는 거주기간(β =.217), 학력(β =.268)으로 나타남. 즉, 거주기간이 길고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6) 지역사회 자본 요인분석

변수	모델1				모델2			
	B	β	t	VIF	B	β	t	VIF
(상수)	72.504		4.776		55.812		3.651	
성별	2.005	.092	.863	1.214	2.019	.092	.917	1.214
연령	-4.846	-.315	-3.110**	1.099	-4.806	-.312	-3.256**	1.099
거주지역	-.896	-.173	-1.713	1.092	-.577	-.111	-1.142	1.136
거주기간	.249	.059	.596	1.067	-.051	-.012	-.126	1.126
학력	2.310	.194	1.678	1.431	1.254	.105	.933	1.522
직업	.080	.024	.216	1.386	.082	.025	.231	1.386
가족형태	.027	.003	.025	1.193	-.368	-.036	-.358	1.210
자녀수	-1.667	-.106	-.999	1.212	-1.567	-.100	-.990	1.212
주거소유형태	-2.797	-.164	-1.524	1.247	-2.427	-.143	-1.1393	1.253
수급여부	-7.219	-.080	-.796	1.090	-1.882	-.021	-.215	1.131
지역사회 만족도					.638	.331	3.220**	1.263
R ²		.236				.323		
Adju R ²		.143				.231		
F		2.532*				3.507***		
Durbin-Watson		1.786				2.008		

p* < .05, p** < .01, p*** < .001

성별 (남성 = 1, 여성 = 2), 수급여부 (비수급 = 1, 수급 = 2)

<표 83>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베이비부머)

-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VIF값이 3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만 독립으로 분석할 경우, 설명력은 23.6%(R²=.236)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p<.05). 분석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사회 만족도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경우, 설명력은 32.3%(R²=.323)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p<.001). 분석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사회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1) 회의내용 결과

(1) 금정구 지역 복지수준

- 금정구 내 지역 간 격차(주거수준, 경제수준 등)가 심하고, 노인복지관의 편중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노인복지의 수준을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한편, 금정구는 동(서동, 금사동, 부곡동 등)과 서(구서동, 남산동, 장전동 등)의 지역적 격차가 크고, 그에 따른 노인들의 욕구에도 차이가 있음.
-

(2) 금정구 노인 욕구 및 문제점과 대안

◦ 금정구 동-서 간의 심한 격차와 그에 따른 욕구 차이

금정구는 동(서동, 금사동, 부곡동 등)과 서(구서동, 남산동, 장전동 등)의 지역적 격차(주거수준, 경제수준 등)가 커 그에 따른 노인들의 욕구에도 차이가 있음. 서금지역의 경우, 저소득층의 거주비율이 높기 때문에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욕구가 높은 반면 사회참여활동과 같은 사업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낮음.

→ 금정구 내 지역과 대상 특성을 반영한 사업 필요(맞춤형 서비스)

→ 노인복지관 분관이 개관하면 가장 좋겠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복지 대상별 기관을 운영하기보다 모든 복지 대상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형태의 기관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 때, 기관의 기능이 명확화 되지 않을 우려와 지역 전체의 욕구를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우려됨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주 기능을 유지하되 상호 기능(타 복지기관의 기능)을 담아 기관이 운영되어야 함.

◦ 노인복지관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제한

서동·금사동 지역 거주 노인들은 여가지원 프로그램, 건강관련 프로그램, 야외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2015년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사 결과), 노인복지관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서동·금사동 지역 노인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렵고, 이에 많은 노인들이 골목에 앉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필요(ex. 서금지역 동사무소, 경로당 내 사업 진행)

→ 금정구 내 네트워크 활용, 지역 내 자원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접근성 향상 필요

◦ **전문적 재능과 경험을 가진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금정구 내에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많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참여활동을 하고자 하는 노인도 많음.

→ 이러한 노인 인력뱅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로 파견함으로써 노인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지역사회에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사업 필요**

베이비부머 세대 내에서도 연령별, 소득별 특성에 차이가 있음. 이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기반 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그리고 금정구노인복지관의 공간적 제한, 낮은 접근성 등 장애 요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또한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 내 자원연계, 민과 관의 협력적 관계가 중요함.

→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 그리고 집단 내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필요

→ 베이비부머 세대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타 전문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무나 건강과 관련된 설계 외, 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서비스나 사회참여와 관련된 ‘노후설계상담’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면 함.

◦ **지역 내 고독사 및 사각지대 문제 해결 필요**

노인 고독사 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고독사 역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case 발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중요함.

→ 주민조직화 등 지역 내 안전망 구축 기능 수행을 위해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노인복지관 고유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진행 필요**

현재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회변화에 따라 ‘치매예방, 전문상담, 우울 등’에 대한 개입까지 요구받고 있음.

하지만 노인복지관의 인력부족 문제로 지역 내 노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 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특성을 반영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임.

→ 노인복지관만의 고유 역할에 맞는 사업을 강화하여 실시해야 함.

(3) 금정구노인복지관의 핵심과제

-
- 금정구 내 지역과 대상(베이비부머 포함)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진행
 - 낮은 접근성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진행
 - 금정구 내 네트워크 활용, 지역 내 자원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접근성 향상
 - 전문적 재능, 경험을 가진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 주민조직화를 통한 고독사 및 사각지대 문제 해결
 - 금정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기능
-

2) 정리 및 요약

전문가집단 포커스그룹 인터뷰 실시 결과,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금정구는 동서의 지역적 격차가 커 그에 따른 복지욕구에 차이가 있으며, 본 기관의 편중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지역 노인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한국사회의 베이비부머세대 대량은퇴와 전문적 재능과 경험을 가진 노인의 증가현상은 금정구 역시 동일할 것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의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역할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사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이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정구노인복지관에서는 금정구 지역 내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후 사회서비스나 사회참여와 관련된 ‘노후설계 상담’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해보는 것이 제시되었음. 또한 주민조직화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고독사 및 사각지대 문제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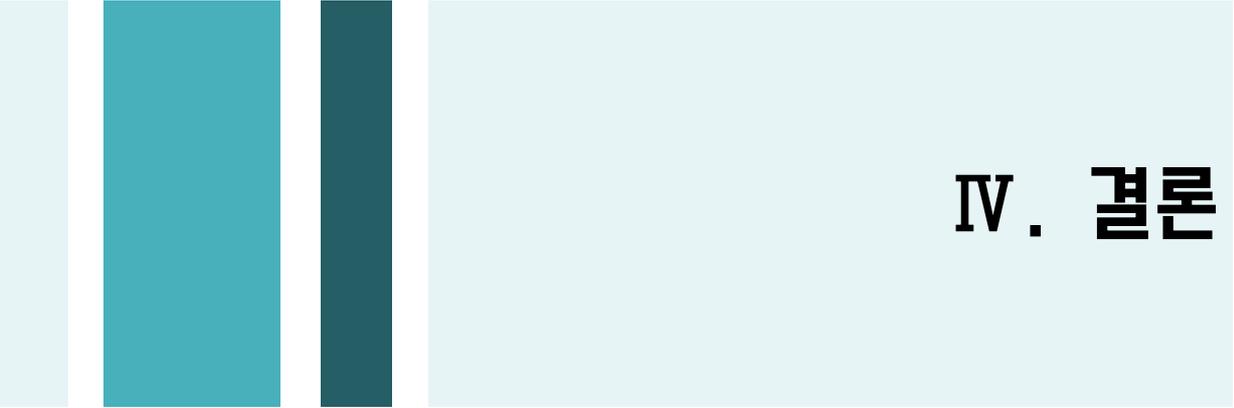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현재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노인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노인복지관에서의 다양한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사회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현 노인복지관의 인력상황과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충분히 고민하여 노인복지관 고유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4. 프로그램 현황(2017년) 분석

- 프로그램 현황 분석은 욕구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복지관 운영에 함의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임. 하지만 지금의 프로그램 현황 분석은 면밀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차원의 수준으로만 분석하고자 함.
- 즉, 사회적 자본 형성을 궁극적인 지역사회복지의 목적 중 하나라고 판단했을 때, 김정구 노인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측정하고, 그 수준의 향상을 복지관이 전략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임의적으로 복지관에서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 별로 구분하였음. 다시 말해 낮게 측정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조정과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 하지만 프로그램의 목적이 하나의 요인에만 해당하기에는 어려움. 또한 참여와 네트워크의 경우, 실제 조사에서는 구분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프로그램은 참여와 네트워크를 묶어 분류했고, 실질적인 네트워크 사업은 기관 네트워크로 따로 분류함.
- 프로그램 분류를 위해 사회적 자본이론 외에 Alderfer 의 ERG(존재, 관계, 성장)이론을 함께 적용하여 분류하였음.
- 프로그램 현황 분석 결과, 사회적자본 전체점수(3.29)보다 낮은 요인은 참여(3.18)와 신뢰(3.24)였음. 이에, <표 84>에서 참여와 신뢰, 특히 가장 낮은 요인인 참여에 해당하는 사업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임.

	존재	관계	성장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회복지원 (물리치료, 건강관리) ◦ 경로식당 ◦ 상담사업 ◦ 사례관리사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버이날 감사 행사 ◦ 노인의 날 기념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선배시민 사회참여 지원사업 ◦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기인식 및 지역사회 이해 프로그램 ‘아카데미 드림 Seniors’
규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출판 ◦ 조사연구 ◦ 직원교육 및 활동
참여,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건강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조직화사업 ‘해찬솔’ ◦ Social mix 아파트 공동체 형성사업 ‘더불주 주다락방’ ◦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1-3세대 통합제과·제빵 프로그램 ‘시니어홈베이커리’ ◦ 소시오드라마 활동을 통한 노인인식개선 사업 ‘시소 공연단’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도시텃밭나눔 지원사업’ ◦ 경로당활성화지원사업 ◦ 지역복지자원연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사업 ◦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사진반, 연극반) ◦ 자서전 작성을 통한 인생회고 프로그램 ‘나의 인생이야기’ ◦ 문학활동을 통한 중년 여성의 건강한 노년기 입성 프로그램 ‘인생2막-멋진 신세계’ ◦ 전문자원봉사 동아리
기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정 해피존네트워크 (민·관 협력 통합 사례관리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금정구네트워크 (금정구 내 종합, 장애인, 노인복지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학습연구네트워크 (일본 생애학습을 기반으로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네트워크)

<표 84> 사회적 자본 이론 기반 프로그램 분류(2017년 사업 기준)



IV. 결론

1. 조사결과에 따른 복지관의 사업 방향

1) 평생교육지원,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한 사업 진행

- 조사결과, 노인들은 평생교육지원과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였음. 특히, 인식하는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원하는 노인복지관의 서비스가 일치하였음.
-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음. 즉, 노인과 예비노인 모두 노후 여가시간을 활기차게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지원과 신체적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여 평생교육지원사업과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기관 프로그램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더 이상 관내 공간 및 시간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존대로 사업을 운영하되 이용자들의 욕구를 수시로 수렴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주민센터, 학교, 경로당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2)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 필요

- 노인들은 활기찬 여가시간, 건강 뿐 아니라 일자리와 취업지원 등 노후 경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특히,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 결과 직업(일자리) 부분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노년기 높은 생활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한 만큼, 노인의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한편, 지역 내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본 기관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을 운영하되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자 함.
- 또한 지역사회 내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 소식지에 관련 정보(ex. 줬다 뺏는 노령연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격차 심화, 노인세대의 소득구조 등)를 게재하고자 함.

3) 복지관 이용자의 특성 차이를 고려한 사업진행

-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욕구를 교차분석한 결과, 그 기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문화와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증진 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론 다양한 연령대와 학력 수준의 이용자들이 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모든 사업에서 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는 없으나, 프로그램별 이용자 모집 시 욕구조사 결과를 감안한다면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4) 서동·금사동과 남산동·구서동 지역의 특성 차이를 고려한 사업개발 및 진행

- 양적조사 결과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많은 전문가들이 금정구 동(서동, 금사동 부곡동 등)과 서(구서동, 남산동, 장전동 등)의 지역적 격차(주거수준, 경제수준 등)가 커 노인들의 욕구에도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음.
- 특히, 서동·금사동 지역의 경우 저소득층의 거주비율이 높아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욕구가 높은 반면, 남산동·구서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음.
- 이러한 금정구 내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기획 시, 기관이 위치한 인접 지역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많은 지역 노인들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5) 낮은 접근성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진행과 네트워크 강화

- 본 기관은 금정구 내 외곽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낮은 편이며, 이는 욕구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음. 노인들 중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대중교통, 접근의 어려움이 52.8%로 가장 높았고, 베이비부머 세대(20.7%) 역시 동일한 이유로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음.
- 한편, 지역조사 결과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76.7%가 복지관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일단 복지관을 이용하면 복지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고, 또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는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이용율과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8년부터 일부 사업(문학활동을 통한 중년여성의 건강한 노년기 입성 프로그램,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기인식 및 지역사회 이해 프로그램, 클래식 음악감상 등)은 주민센터 내에서 진행하고자 함.
- 이와 더불어 금정구 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원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 접근의 기회가 적은 노인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6)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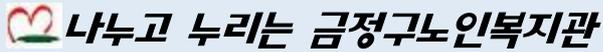
-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전, 이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제안함. 본 지역조사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표본의 수(100명)가 적어 금정구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추후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17년부터 만45세~60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학활동을 통한 중년여성의 건강한 노년기 입성 프로그램’을 추후에도 지속 운영하며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7) 활동적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활성화 사업 강화

- 현재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노인은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그리고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에서도 전문적 재능과 경험을 가진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음.
- 본 기관은 그 동안 기관 미션·비전에 맞춰 노인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음. 이에, 점차 노인들의 참여도가 향상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지하는 등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경험적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노인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들을 확대하고 강화하고자 함.

8) 고독사,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지역조직화 사업 진행

- 현재 전국적으로 고독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사각지대 발굴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활동이 중요할 것임. 이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case를 발굴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이에, 현재 본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는 사례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특히, 주민조직화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안전망 구축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조직화사업(노인이 건강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조직화사업, Social mix 아파트 공동체 형성사업)을 지속 운영하고자 함.



금정구 지역주민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 금정구노인복지관은 금정구 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노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바르게 정립하고 보다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을 통해 귀하께서 밝혀주신 의견은 어르신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 결과의 결과는 욕구조사 분석을 위해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시어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본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금정구노인복지관장 조 수 경

- 조사 기관 :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 금정구노인복지관
- 기관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110 (청룡동)
- 홈페이지 : www.geumjeongsilver.kr
- 담당자 : 김새봄 사회복지사 ▪ 연락처 : Tel 792-7200, Fax 792-7222

조사원		ID		편칭(코딩)여부	
-----	--	----	--	----------	--

Part 1. 노인복지관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1. 귀하는 '금정구 노인복지관'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모른다 ② 알지만 이용하지 않았다 (1_1) ③ 이용하고 있다 (1_2 ~ 1_5)

1_1.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② 시설 불편, 낙후됨 ③ 낮은 서비스의 질
 ④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불편 ⑤ 정보제공부족 ⑥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⑦ 이용시간대의 제한 ⑧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⑨ 본인이 바쁘고 시간부족
 ⑩ 비용부담 ⑩ 기타 (내용:)

1_2. 금정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1주일에 얼마나 방문(이용)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주 1~2회 ③ 주 3~4회 ④ 행사 때만

1_3.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이다

1_4.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① 체력증진을 위해 ②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③ 동년배와의 교제 ④ 무리한 시간 탈피
 ⑤ 식당 등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 ⑥ 일자리 마련을 위해 ⑦ 기타 ()

1_5. 노인복지관 이용 후,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순위 () 2순위 ()

- ① 여가시간을 더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②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③ 신체적 건강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④ 정신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⑤ 사회적 관계를 유지 및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⑥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ex. 봉사활동, 지역사회공헌활동 등).
 ⑦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⑧ 가족관계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⑨ 기타 ()
 ⑩ 없다

2. 노인복지관은 몇 세부터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0세부터 ② 55세부터 ③ 60세부터 ④ 65세부터 ⑤ 70세부터

3. 귀하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로 누구에게 얻으십니까?

- ① 친구나 이웃
- ② 인터넷(홈페이지)
- ③ 가족(배우자, 자녀 등)
- ④ 관공서(구청, 동사무소 등)
- ⑤ 지역신문(신문, 방송 등)
- ⑥ 경로당
- ⑦ 복지관 직원(홍보물 등)
- ⑧ 기타 ()

Part 2.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금정구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어르신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4. 귀하는 노인복지관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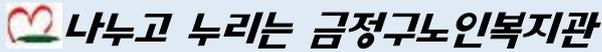
1, 2순위에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안에 적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여가, 취미, 교육 지원을 통한 노년기 평생교육 활성화 기능
- ② 급식, 건강검진, 건강교육, 건강교실 등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기능
- ③ 심리상담, 치매상담, 세무·주택·법률상담 등 전문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기능
- ④ 안정적인 심리·정서 상태를 위한 정서생활 지원
- ⑤ 자원봉사, 재능기부, 주민활동 등을 통한 활동적 노후 도모 기능
- ⑥ 일자리 지원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
- ⑦ 치매·돌봄·보호·위기 지원 등을 통한 돌봄기능 및 통합적 문제해결 기능
- ⑧ 노인인식개선, 권익옹호·대변 등을 통한 노인권익 증진 기능
- ⑨ 베이비부머 재취업, 인생설계 지원 등을 통한 예비노인 노후복지 지원 기능
- ⑩ 기타 ()

5. 귀하는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또는 사업 중, 어떤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받고 싶으십니까?

1, 2순위에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안에 적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지원 (ex.외국어, 컴퓨터교실, 악기배우기, 댄스배우기 등)
- ② 건강증진서비스 (ex.급식, 물리치료, 건강정보제공, 건강강좌, 검진, 체력단련 등)
- ③ 상담지원 (ex.심리상담, 치매상담, 죽음·인권·자살·법률·세무·성 상담, 노인학대상담 등)
- ④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ex.죽음준비 프로그램,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
- ⑤ 사회참여활동지원 (ex.자원봉사, 재능기부, 지역사회 문제해결, 동아리활동 등)
- ⑥ 일자리와 취업지원 (ex.창업, 취업, 용돈벌이, 소득보장 등)
- ⑦ 위기관리 및 독거노인지원 (ex.취약노인 밀반찬·생활용품 지원, 재가·긴급지원 등)
- ⑧ 노인권익서비스 (ex.정책건의, 노인인권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설치 등)
- ⑨ 베이비부머(예비노인) 지원 (ex.재취업, 인생설계, 자립프로그램, 인문학 등)
- ⑩ 기타 ()



금정구 지역주민 욕구조사

(1955년 ~ 1963년생)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 금정구노인복지관은 금정구 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노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바르게 정립하고 보다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을 통해 귀하께서 밝혀주신 의견은 어르신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문의 결과는 욕구조사 분석을 위해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시어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본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금정구노인복지관장 조 수 경

- 조사 기관 :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 금정구노인복지관
- 기관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110 (청룡동)
- 홈페이지 : www.geumjeongsilver.kr
- 담당자 : 김재범 사회복지사 ▪ 연락처 : Tel 792-7200, Fax 792-7222

조사원		ID		편칭(코딩)여부	
-----	--	----	--	----------	--

Part 1. 노인복지관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1. 귀하는 '금정구 노인복지관'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모른다(1_2) ② 알지만 이용하지 않았다(1_1) ③ 이용하고 있다(1_2)

1_1.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② 시설 불편, 낙후됨 ③ 낮은 서비스의 질
 ④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의 불편 ⑤ 정보제공부족 ⑥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⑦ 이용시간대의 제한 ⑧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불친절 ⑨ 본인이 바쁘고 시간부족
 ⑩ 비용부담 ⑪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⑫ 기타(내용:)

1_2. 이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용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① 체력증진을 위해 ②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③ 동년배와의 교제 ④ 무료한 시간 탈피
 ⑤ 식당 등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 ⑥ 일자리 마련을 위해 ⑦ 기타()

2. 노인복지관은 몇 세부터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0세부터 ② 55세부터 ③ 60세부터 ④ 65세부터 ⑤ 70세부터

3. 귀하는 중장년층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로 누구에게 얻으십니까?

- ① 친구나 이웃 ② 인터넷(홈페이지)
 ③ 가족(배우자, 자녀 등) ④ 관공서(구청, 동사무소 등)
 ⑤ 지역신문(신문, 방송 등) ⑥ 관련 민간기관이나 단체
 ⑦ 복지관 직원(홍보물 등) ⑧ 기타()

Part 2. 베이비부머 노후 복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4. 귀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신체적 건강 ② 정신적 건강 ③ 경제적 풍요 ④ 가족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⑤ 인간관계 ⑥ 사회적 지위 ⑦ 쾌적한 주거상태 ⑧ 기타 ()

5. 귀하는 은퇴이후 가장 지향하는 삶의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 ①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 ② 학습과 같은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③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의미 있는 활동 ④ 종교활동에 전념 ⑤ 소득창출을 위한 활동
 ⑥ 가사활동 또는 손자녀 양육 ⑦ 기타 ()

⑩ 기타 ()

11. 귀하는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또는 사업 중, 어떤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받고 싶으십니까?

1, 2순위에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안에 적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지원 (ex.외국어, 컴퓨터교실, 악기배우기, 댄스배우기 등)
- ② 건강증진서비스 (ex.급식, 물리치료, 건강정보제공, 건강강좌, 검진, 체력단련 등)
- ③ 상담지원 (ex.심리상담, 치매상담, 죽음·인권·자살·법률·세무·성 상담, 노인학대상담 등)
- ④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ex.죽음준비 프로그램,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
- ⑤ 사회참여활동지원 (ex.자원봉사, 재능기부, 지역사회 문제해결, 동아리활동 등)
- ⑥ 일자리와 취업지원 (ex.창업, 취업, 용돈벌이, 소득보장 등)
- ⑦ 위기관리 및 독거노인지원 (ex.취약노인 밀반찬·생활용품 지원, 재가·긴급지원 등)
- ⑧ 노인권익서비스 (ex.정책건의, 노인인권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설치 등)
- ⑨ 베이비부머(예비노인) 지원 (ex.재취업, 인생설계, 자립프로그램, 인문학 등)
- ⑩ 기타 ()

11.1. 위의 질문에 응답한 받고 싶은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귀하께서는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꼭 참여할 것이다 ② 참여할 것이다 ③ 고려해 보겠다
- ④ 참여하고 싶으나 여건이 안된다 ⑤ 참여할 의사가 없다

12.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역 안에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노인의 소모임을 위한 공간 마련 ② 동네 이웃 관계 개선
- ③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운동시설 확충 ④ 열악한 주택환경 개선 및 보급
- ⑤ 노인 고독사 문제해결 ⑥ 거주지 보안 및 안전문제 개선
- ⑦ 은퇴노인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주민모임 ⑧ 동네 환경문제 개선
- ⑨ 베이비부머 세대(예비노인)을 위한 사업 진행 ⑩ 치매노인 및 가족 지원
- ⑪ 기타 ()

13. 귀하가 사회참여활동을 하길 원하신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 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봉사활동
- ② 노래, 악기연주, 한자지도, 동화구연 등 재능을 활용한 사회봉사활동
- ③ 시의회 감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 지역사회공헌활동
- ④ 노인인권옹호, 정책건의 등 노인권익 신장활동
- ⑤ 세대 간 소통, 초·중·고등학생 연계 활동 등 1-3세대 통합을 위한 활동
- ⑥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활동
- ⑦ 기타 ()

14.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서비스가 강화될 경우, 어떤 영역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 법률, 주택, 세무 등의 전문상담
- ② 가족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등 대인관계 상담
- ③ 노인 학대, 스트레스, 고독, 우울증 등의 심리·정서 상담
- ④ 이성교제, 부부 성적갈등, 성적소외 등의 성(性)상담
- ⑤ 노인 치매, 만성질환, 건강관리 등의 건강 상담
- ⑥ 기타 ()

15.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지원 서비스가 진행된다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반인을 위한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ex. 치매검사)
- ② 일반인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ex. 미술치료, 노래수업 등)
- ③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를 위한 프로그램 (ex. 작업치료, 인지증진 향상활동 등)
- ④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ex. 교육, 자조모임, 스트레스 해소활동 등)
- ⑤ 기타 ()

16. 다음의 항목 중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건강					
가족관계(자녀 또는 부모)					
경제적 여건(소득)					
직업(일자리)					
사회참여(단체, 조직 활동)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위의 항목 모두 고려한 전반적 만족도					

Part 4. 지역사회에서의 삶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구분	매우 높다	조금 높다	보통 이다	없는 편이다	전혀 없다
17_1. 가족간 신뢰					
17_2. 이웃에 대한 신뢰					
17_3. 타지역(부산 이외) 사람에 대한 신뢰					
17_4. 부산시, 금정구, 주민센터(본인 거주동)에 대한 신뢰					
17_5.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신뢰					
17_6. 경찰에 대한 신뢰					
17_7. 복지관에 대한 신뢰					
17_8. 금정구 주민으로서 자부심					
17_9. 지역사회 현안에 관심 정도					
17_10. 주민들의 준법 정신(교통질서,쓰레기 무단투기 등)					
17_11. 부정, 부패에 대한 거부감					
17_12. 선거(투표) 참여정도					
17_13.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나도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7_14. 취미단체나 친목단체 참여 수준					
17_15. 아파트 모임이나 지역행사에 참여하려는 의지					
17_16. 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					
17_17. 헌혈, 기부 등에 참여하려는 의지					
17_18. 복지관(사회복지사)과의 교류 정도					

부록 3.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I [지역에 대한 복지수준] 노인복지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

II [욕구 및 문제] 지역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는 욕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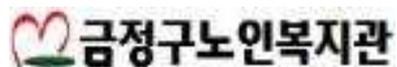
.....

.....

.....

**2017년 금정구노인복지관
지역사회조사 결과보고서**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관장 조 수 경
담당자	과장 김 새 봄
자문인	교수 배 은 석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행처	금정구노인복지관 부산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110(청룡동) 전화 051)792-7200~3 / 팩스 051)792-7222



<http://www.geumjeongsilver.kr/>
